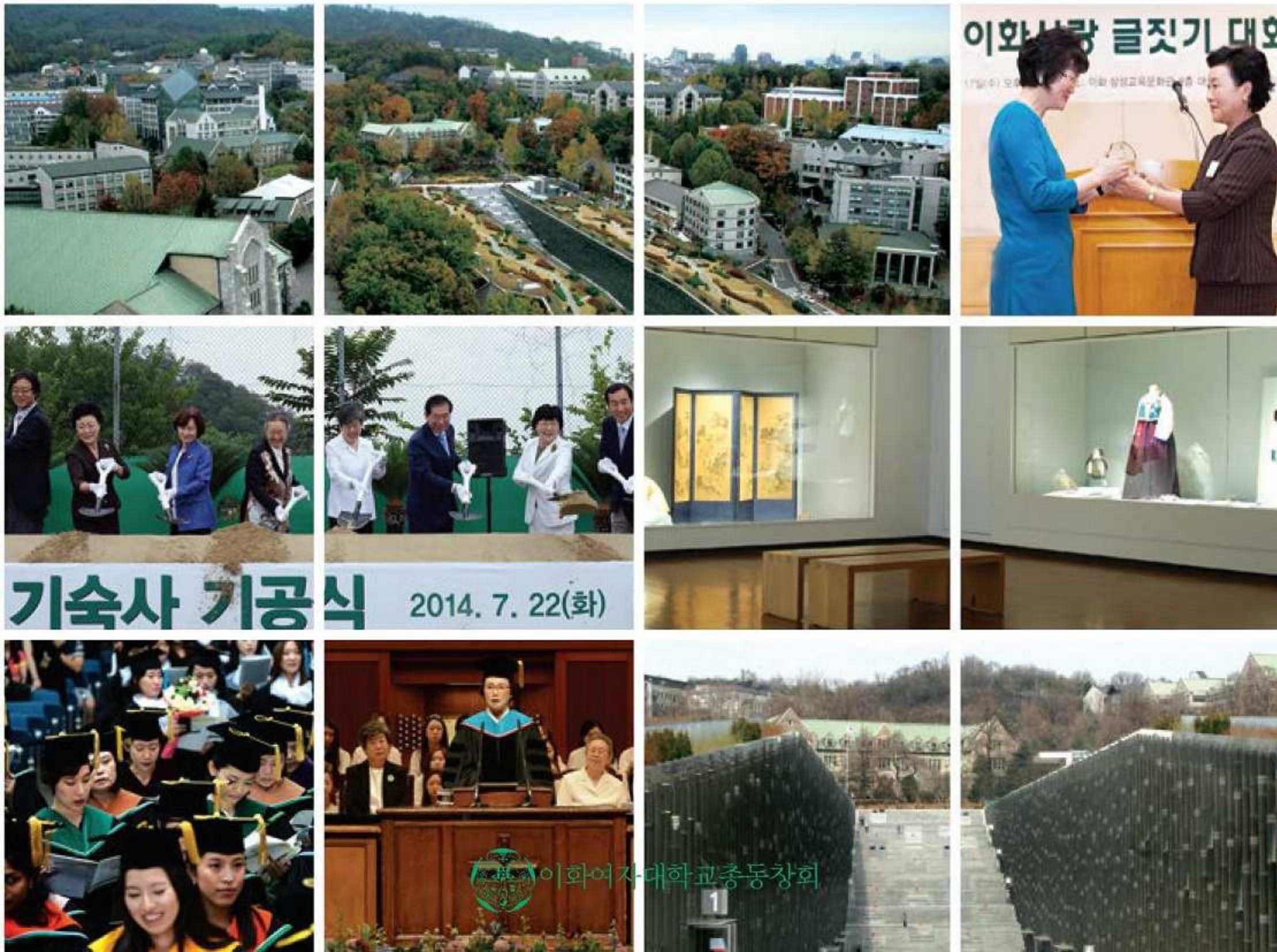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회보 2014년 가을 제136호



이화동창

2014년 가을 제136호



- | | | |
|----|--------------|------------------------------------|
| 02 | • 가을의 시 | 그리움 윤정자 |
| 03 | • 가을에 전하는 말씀 | 이화정신 가득한 동창회에 자부심 가지시길 김순영 |
| 04 | • 총장 취임 특별대담 | 모교 제15대 최경희 총장 맞아 '이화' 재도약의 시대를 열다 |
| 10 | • 글짓기대회 시상식 | 이화인 글 통해 '나눔과 섬김' 의 이화정신 이어가길 |
| 14 | • 기획 시리즈 | 노교수와 사랑하는 제자들-법학과 |
| 19 | • 아름다운 기부이야기 | 내 이미니 '강인자' 가 남긴 '이화사랑' |
| 22 | • 자랑스런 이화동창 | 네델란드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관장 송창주 |
| 24 | • 이화 유망주 | 한소연 화학과 교수가 주천하는 조소혜박사 |
| 26 | • 기획 시리즈 | 소설가 김선주가 만난 이화 경영인 강옥채 대표 |
| 30 | • 기획르뽀 | 인재 양성의 산실 이화 기숙사 |
| 34 | • 이대박물관 소식 | 이화동창을 위한 '전시 설명회' 신설 |
| 36 | • 글짓기대회 수상작 | 쏘개떡 짜 먹던 날 배복현 |
| 39 | • 총동창회 소식 | |
| 42 | • 대학 소식 | |
| 44 | • 과·학부 소식 | |
| 48 | • 국내·해외지회 소식 | |
| 56 | • 동창소식 | |
| 58 | • 동창이 펴낸 새책 | |
| 59 | • 모교 소식 | |
| 63 | • 신입동창 명단 | |
| 73 | • 축하합니다 | 조애진 최영애 조성남 김경숙 권숙교 문미란 |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 박경희(신방90)

2014년 가을 제136호 비매품 | 발행 · 2014년 10월 15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문예바다(02-744-2208) | 디자인 · 박래후편집공방 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독일인쇄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4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그리움

윤정자

(영문 64)

눈을 감아봅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어떻게 생겼나 그려봅니다.

둥글던가요? 모나던가요?

영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리움이 병이라면

누워서 쉬어보련만

떨쳐버리면 다가오고

잊으려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뉘 힘으로 밀어 내리요.

달려가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건만

몸과 마음이 짐작으로 달혀지고 맙니다.

때로는 아름답다가도 미워지는

그 그리움을

오래도록 사이면서 물어 버립니다.

이화정신 가득한 동창회에 자부심 가지시길

김순영

약학과 02년 졸업, 총동창회 고문

여름엔 마른장마라더니, 이젠 가을장마라고 합니다. 매를 놓친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오랜만에 서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이 글을 씁니다.

우리 이화동창들은 남다른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전통의 동창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화동창들은 어느 날 문득 우리들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화정신, 즉 이화의 원칙과 규율,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모든 이화인들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나눔과 섬김의 이화정신으로 가정과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정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총동창회장으로 재임 중 ‘총동창회 100년사’를 편찬하면서 보게 된 이화의 담대한 역사에 새삼 웃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역대 동창회장님들의 헌신적이고 사(私)가 아닌 공인(公人)의식은 여타 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이화만의 전통이자 영원히 이어져야 할 장점입니다.

이화정신으로 이루어진 동창회의 강점은 아무리 해도 다함이 없다는 걸 생각하며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화동창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계속되는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지지 않고 협조하시는 것은 물론 동창회의 모든 행사에 한결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 등등 이루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제는 공공연히 거론되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저희 모두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70년대부터 이어온 저출산으로 모든 대학이 위기이며, 특히 여자대학은 지난 80년대부터 여학생들이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추세

에 맞서야하는 힘겨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담대한 이화의 DNA’는 산학협력관을 개관하고 한국대학 최초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이화 솔베이 연구센터’를 개관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 128년 사상 첫 과학을 전공한 최경희 동창이 지난 7월 29일 15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혁신이화 (Innovation Ewha)’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여자대학의 한계에 도전할 것이며 여자대학의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사이 비가 그쳐 창밖 마당엔 가을색이 완연해졌습니다. 다시다난한 일도 많지만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를 우리 모두 원하며 추억의 계절, 이 가을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교 이화교정과 동창회를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젊은 날의 초상, 후배들과 호흡하며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 ECC에서 커피에 취하고, 교보문고에서 읽고 싶었던 책 한권 사고, 모모에서 예술영화 한편을 관람하시고 나면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노스탈지아(Nostalgia) 여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을이 특별해 질 것입니다.



최경희 총장 취임 특별대담

모교 제 15대 최경희 총장 맞아 ‘이화’ 재도약의 시대를 열다

8월 1일부로 제 15대 이화여대 총장으로 취임한 최경희 총장을 지난 9월 16일 조종남 총동창회장이 총장실에서 만났다. 취임 후 1개월여 남짓, ‘이화’를 위해 남다른 행보를 보여온 신임총장과 3년 6개월여 총동창회의 20여만 동창들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온 총동창회장의 만남은 ‘이화’ 128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이화의 재도약’을 꿈꾸게 한다. (편집자주)

정리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경은(영문 79, 이화동창 편집위원)

회장 총장 취임 후 바쁘신 가운데 동창들을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화’의 수장으로 취임하신 소감과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총장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

다. 128년의 ‘이화’의 역사를 함께한 훌륭하신 역대 총장님과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이화의 명예와 전통을 잘 이어 나가야겠다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도록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이화의 설립취지를 살려 더 큰 도전을 해 보고 싶습니다.

회장 세간에 짚은 총장님으로 화제를 모으셨는데 이 시대가 원하는 여성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 취임 이후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를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의 철학이 들어있음과 동시에 '이화'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진과정에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화'를 둘러싼 외부 상황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화'도 이에 발맞춰 함께 변화하고 도전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기치로 내건 짚은 총장이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이화'가 이러한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고 또 혁신을 이끌 리더십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의 역사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이화인들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가 훌륭한 여성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화'의 도전과 혁신 DNA가 깃든 인재들이 바로 이화인들입니다. 여성리더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으니까요.

저는 '이화'의 역사, 그리고 '이화'의 동창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도전과 혁신의 DNA를 갖춘 리더십이 지금의 시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용기있게 행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기에 총장님께서 '도전과 혁신'을 기치로 내세운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 제가 제시한 비전이 이 시대에 '이화'가 나아갈 방향과 구성원이 해야 할 일들인데, 이것이 바로 리더십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장 최근에 제가 본 영화 'Grace of Monaco'에서 영화배우였던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의 왕비로서 프랑스의 모나코 침략을 막은 것을 보고 리더의 모습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취임식에서 '이화'의 도전과 혁신, 발전을 비전으로 네 가지 혁신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장 혁신의 세부 방향은 조직혁신, 인재혁신, 인프라혁신, 네트워크혁신 4가지입니다.

우선 '조직혁신'을 통해 학내조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전통 학문이 실용적인 학문과 융합할 수 있도록 전공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학과 통합과 융합 전공 신설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현장에 즉각 적응할 수 있도록 특정학과를 산업적으로 특성화시켜 취업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학 전공을 패션산업학과로 변경하여,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과 그 이후의 연구도 연결해주고, 식품영양학과를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외식산업과 연계시키고, 체육과학부도 선수만을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체육 및 스포츠



최경희 총장

마케팅, 스포츠 디자인 등으로 나아가 산업화하고 융합화해서 학과를 개편하고 조직하려고 합니다.

임기가 4년이기에 조직혁신을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이화를 대표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 육성을 위해 글로벌 연구 클러스터를 적어도 5개 이상 유치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인재혁신'은 이화인 모두가 입학 때 보다 더 우수한 학생이 되어 졸업하는 학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우리 학생들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을 위해 '이화'와 교류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연구처장으로 있을 때, 솔베이 기업을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에 R&D연구소

를 유치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솔베이'는 세계 굴지의 뛰어난 기업입니다. 일본 등 '솔베이'를 유치하려한 외국과 한국의 우수 대학들과 경쟁하여 이를 채거입니다. 솔베이사와 협약할 때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장학금 확충과 솔베이 인터내셔널 기업의 인턴십 및 연구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조건을 내세웠었는데 솔베이가 모두 승낙하며 연구소를 '이화'에 설립한 것으로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학생들이 외국대학, 외국기업 등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대에 화학신소재공학부를 신설하여 내년에 처음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과 신설로 현실과 맞는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여 최고의 학생을 더 최고로 키우고, 평범한 학생들도 최고의 학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인프라혁신'은 학교 내 공간의 혁신을 말합니다. 이화가 역사와 전통은 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최근에 지은 다른 학교들의 건물과 비교가 됩니다. 최첨단 강의동을 설립하고 교수들에게 충분한 연구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창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트워크혁신'입니다. 이것은 20여만 '이화동창'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화 DNA(Dream and Achievement)라고 이름 붙였는데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등 세계 속의 20여만 동창을 모두 찾아내어 하나로 엮어주고 뱃속까지 '이화인'으로 만들고, 졸업 후

에도 필요하다면 재교육하고, 성공한 동창들이 미래 동창이 될 재학생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학교로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만드는 등 선순환적인 네트워크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회장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동창회도 더 활성화되고 동창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화 DNA(Dream and Achievement)’가 성공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조직혁신’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동창들이 가정대학, 체육대학, 간호대학 등의 명칭이 사라지는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이번 기회에 동창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장 구조조정 된 단과대학 동창들이 애석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화’라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 학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대학의 의류직물학과가 조형예술대학의 의류학전공으로 되었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 패션산업학과로 변경 계획 중입니다. 식품영양학과도 영양학과 식품공학적인 면이 있는데 식품공학은 공대에서 질하고 있고, 영양학은 한 언론매체 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일 가정대학이 변화 없이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의 성과를 이루었을 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신문방송학과’도 ‘언론·홍보·영상학부’가 되어 발전하였지만 2015학년도부터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로 개칭하여 더 발전시켜나갈 계



조종남 총동창회장

획입니다.

동창들이 그 당시의 대학과 학과 이름에 연연하지 말고 더 발전하여 조직화되고 융합해서 더 큰 ‘이화’를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동창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더 발전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 우리학교에 세계의 200위권 안에 드는 학과가 현재 4개 있는데, 앞으로 10개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에서 적어도 1개 과만이라도 선두주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회장 대한민국의 여자대학 중 남녀공학과 견주어 ‘명문’으로 존재해온 ‘이화’가 진정한 여성리

더들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현재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등의 말이 떠도는 것처럼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명문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있으신지요?

총장 입시 경쟁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왜곡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이화'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자'는 모토로 이화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학교는 신입생들의 입학성적과 입학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외부의 편견과 선입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학교 이미지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 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화의 자존심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창들의 든든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장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남녀공학, 남녀평등 이 대세인 요즘 '이화여대' 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무한한 잠재력 은 물론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분야에서의 평등과 융합적 사고를 위해서 '여자대학'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김활란 전 총장님께서 여성과 남성의 국회 의원 수가 같아질 때까지 '여대' 는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그런 미래는 오지 않았고 남녀평등의 완전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문적 역량과 독립적 인성을 함께 키우는 '이화' 만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화는 여전히 한국의 미래를 열어

갈 소중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여성리더는 여대에서 배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장 '이화여대'에서 여자 대통령을 배출하는 날 을 기다리겠습니다. 총장님의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총장 사범대학 출신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고 성취한 것은 사회에 환원하자고 말해왔는데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이화 DNA(Dream and Achievement)' 에서 말 했듯이 꿈(dream)을 갖고 목표를 이루고, 이룬 목 표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환원하라는 것입니다.

회장 동창회 활동은 열심히 하셨는지요?

총장 총동창회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과 동창회에서 회계를 오래 맡아 회의 등에 반드시 참석하였습니다. 식사모임 때는 가끔 사비도 보태며 선배들과의 만남을 좋아했습니다. 사범대학 교우회에서도 총무를 하는 등 기꺼이 봉사했습니다.

회장 앞으로 모교와 총동창회는 더욱 더 한마음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여만 동창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총장 20여만 동창은 이화의 큰 자랑거리이고 힘 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만 동창이 서로를 끌어 당겨주는 힘을 발휘한다면 상당한 힘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은 학교가 동창들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했는데, 저는 DNA 네트워크를 하면서 학교가 동창들에게 힘이 되게 하는 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을 통해 졸업 후에도 더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창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또 동창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pride up 이화”-이화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동창들께서도 제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에서 학교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창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회장 이화동창에는 정회원 외에 특별회원, 즉 이화인은 아니지만 이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화의 자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교와

의논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총장 지금 제 마음 속에는 ‘이화비전 선포식’을 ‘이화인의 밤’ 행사 때 총동창회와 함께 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의 역량을 홍보하여 사회각계 각종에서 ‘대(大) 이화후원연대’를 만들어서 이화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기회도 늘리고 기금 모금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 기금모금은 꼭 필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학교의 등급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힘쓰겠다고 하시니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희 총장(과학교육과 85년 졸업)은 미국 필라델피아 텁풀 대학교 교육학 박사를 받고 1994년 이후 이화여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처 처장, 연구처 처장 및 사범대학장을 등을 역임하였다.

제 1회 ‘이화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이화인글통해 ‘나눔과 섬김’ 의 이화정신 이어가길



총동창회는 9월 17일 오후 4시 이화삼성문화관 8층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제 1 회 ‘이화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총동창회가 정보통신부 신설을 기념 하여 지난 4월 ‘이화 사랑’ 을 주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공모한 작품 41편 중 수상작은 총 15편으로 시상식장에는 가족, 축하객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에게 축하 박수와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김효신(의학 84)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김미순(기독 75) 선교부장의 기도와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의 인사, 김순영(약학 62) 총동창회 고문의 축사, 성시열(의학 81) 정보통신부장의 경과보고, 백시종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의 심사평이 있은 후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128년의 역사를 가진 20여만 동창들이 이화 교정의 추억과 삶을 같이 나누고, 이화의 사랑과 정신을 이어가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화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면서 ‘제 1회는 홍보가 잘 되지 못해 많은 동창이 참여하지 못했으나 해가 거듭되면 분명히 좋은 호응을 얻게 될 것’이라며 멀리 미주지역에서 수상하기 위해 모교를 찾은 수상자들을 치하하였다.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백복현 총동창회장상 수상자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은 축사를 통해 “제정취지에 맞게 ‘이화사랑 글짓기대회’가 국내 외 모든 동창의 응모가 갈수록 많아져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작가가 등단하기를 바란다”면서 “나눔과 섬김의 이화정신이 이화인의 삶과 글을 통해서 우리 전 민족의 혈관에 DNA로 이어지리라 확신한다”고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백시종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이번에 응모된 글을 읽고 128년의 역사를 가진 이화 여대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어떤 글은 앞으로 수기 형태로 발전해도 더 좋을 것이며 대체로 좋은 글 수준에 접근하고는 있으나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참으로 향기 나는 작품을 발견하고 가슴 두근거렸다고 말 할 수는 없다.”는 심사평을 하였다.

이어서 총 15명의 수상자가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상패 및 부상을 받았으며 수상자 중 백복현(영문 82) 총동창회장상 수상자와 최규룡(의학 82) 이화사랑상 수상자의 수상소감이 있은 후 교가제창과 기념촬영으로 시상식을 마쳤다.

수상자 명단

총동창회장상

백복현(영문 82) 수필 '쑥개떡 쪄 먹던 날'

이화사랑상

최규룡(의학 82) 수필 '회상: 안과학 교실 입국 30년차'

이화행복상

최규련(간호 72) 수필 '기을과 단풍 친구들'

이혜경(초교 83) 수필 '가슴에 품어온 마지막 작은 예배'

김연아(문정 91) 수필 '정전 때문에 벌어진 일'

장희윤(교공 09) 수필 '사랑은 이화를 타고'

이화우정상

김경희(영문 72) 수필 '새봄에 만난 소설 "無"'

박순혜(국문 73) 수필 '보스톤에도 그윽한 이화의 향기'

박선주(법학 73) 수필 '올해의 이화인 그 후'

이 란(신방 81) 수필 '이화에 대한 서로 다른 마음'

최영숙(보교 82) 수필 '잊을 수 없는 100돐 한 장의 지폐'

임선명(의학 82) 수필 '특별한 모찬'

김영미(영문 87) 수필 '윤정옥 선생님께'

우은주(영문 90) 수필 '이화 그리고 나'

진미영(행정 93) 수필 '소중한 만남, 이화'

| 이화사랑 글짓기 대회 |

9월 17일(수) 오후 4시 | 장소: 이화 삼성교육문화관 대강당 |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 이화사랑 글짓기 대회 |

9월 17일(수) 오후 4시 | 장소: 이화 삼성교육문화관 대강당 |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 이화사랑 글짓기 대회 |

9월 17일(수) 오후 4시 | 장소: 이화 삼성교육문화관 대강당 |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노교수의
회상

‘솟을관’ 마중물로
법조인 양성 명문대
우뚝 세우고
재승후덕(才勝厚德)한
이화인
길러 내고자 하다

윤후정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총장(법학과 1955년 졸업)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전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중강당에서 4학년 전체가 김활란 총장선생님의 ‘여성과 직업’이라는 교양수업을 듣던 때의 일이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 주제를 써내면 그 중 하나를 택해 강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요성의 한 주제가 ‘여성의 법적 지위’였다. 김활란 선생님께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모두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학과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 할 사람 없느냐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술렁이던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지목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동급생들 앞에서 했던 이화에서의 내 첫 ‘강의’였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싶었던 나는 조교 신분으로 몰래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종종 사무실을 비웠던 나는 학교당국에 들켜 김옥길 선생님께서 헬렌관 앞 솔밭으로 불러내셨고, 김옥길 선생님은 “너는 학교에 남아있는 게 더 나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 2년차 때부터 법학개론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몇 년 차 이 안나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격이니 밤이 새도록 강의 준비에 진땀을 뺐다.

P.E.O.라는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예일대에서 유학 중이던 나는 디스크라는 병마로 중도하차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그런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고달픈 몸으로 학과장, 학무과장

등의 보직으로 정신없이 지내야만 했다. 그러던 중 1964년 6월 불평등한 한일회담을 반대하며 대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우리 학교의 총학생회장과 법대학생회장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정부에서 시위 기담학생들을 퇴학시킬 것을 하명했고,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학과장으로서 회의에 불려가게 된 나는 사표를 준비갔다. 나야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고, 선생까지 했으니 먹고 살 길을 찾으면 되겠지만, 이 학생들은 대학도 졸업 못한 채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 나는 나의 사표와 이들의 퇴학처분을 바꿔 달라고 간청했다. 회의에서 이들의 퇴학 대신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졌고, 이들은 1년 후에 복학할 수 있었다. 당시 시위에 주동적으로 참가했던 대학생 중 퇴학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은 아마 우리학교 학생들뿐이 있을 거라고 들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 학생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시했던 것이야말로 우리 이화의 전통이었던 것이다.

디스크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나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1968년~1972년 다시 노스웨스턴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학위를 마치고 귀국 후 이론 위주로 교육하던 당시 한국의 법학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편례 위주의 토론회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 한번은 오후 2시에 시작한 대학원 수업을 어둠이 오는지도 못 느낀 채 8시가 되어서야 끝낸 적이 있는데 당시 수업을 들었던 제자가 “강의 하는 사람도 미치고, 강의 듣는 사람도 미쳤던 강의”라며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리며 웃곤 한다. 이렇게 학생들과 학문적 교류를 나누다보니 더 욕심이 생겨 1977년부터 1979

년까지 객원교수로 코넬대와 하바드대에서 연구를 하였다. 학자로서 좋은 책을 써보리라는 포부를 가지고 엄청난 양의 자료를 모아 귀국하였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김옥길 총장선생님이 부르셔서 가보니 덜컥 학장을 맡으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책도 쓰고 싶고 연구도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나가 보라우!”라는 단호한 말씀으로 내 청을 들은 척도 아니하셨다. 우리는 그때 학교에서 말씀하시면 토를 달수가 없었다. 학문에 대한 나의 포부는 미뤄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학장이 되고 보니 창립 30주년이 다되도록 사법고시 합격생이 별로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당시 학교가 특정 학과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는 아픈 가슴을 앓고 부흥의 가치를 걸고 법정대학 창립 30주년 행사인 “법정인의 밤”을 열었다. 동창들, 이영희 회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여 당시 천만 원이라는 기금을 모금하였고, 이 기금을 기반으로 전국의 우수한 학생 14명을 장학생으로 입학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입학한 14명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당시 영문과가 빙남하여 비어있던 영학관 자리에 ‘솟을관’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법고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에 시차를 두고 모두 합격하였다. 현재 배출해낸 법조인이 900여명에 다다르며,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생도 많은 편이다.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생각하면 당시 “이럴 수는 없다!”며 마중물을 부었던 일이 참으로 큰 물줄기로 이어졌음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며 당시 우리 함께 뛰었던 법정대학 교직원의 수고 또한 잊을 수 없다.

큰스승 윤후정 선생님

전효숙

(73년,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후정 선생님을 처음 뵈 것은 대학교에서 헌법 강의를 수강할 때였다. 미국 유학에서 갓 돌아 오신 선생님은 늘 하늘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강의를 하셨다. 특히 여성과 평등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목소리의 톤이 더욱 커져 저절로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선생님의 걸음걸이는 너무도 당당하셨고, 표정에는 위엄이 넘쳤으며 학생들에게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다. ‘감히 기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선생님에 대한 인상은 머지않아 반전되었다. 고시반을 지도하시던 선생님께서 어느 봄날, 학교 후문 근처의 고시반 기숙사를 갑자기 방문하셨다. 커다란 질책을 예상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예쁜 꽃다발을 내미시고, 어려움이 없는지 자상하게 물으셨다. 또 하루는 봉원동 자택으로 나를 불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다. 수년간 집을 떠나 수험생활에 지쳐 있던 나는 그 맛있고 따뜻한 집밥을 대하고 자꾸 코를 훌쩍였다. 내 눈물을 애써 못보신 듯 선생님께서는 “감기가 심하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강하면서도 따뜻하고 남다른 예지력을 갖추신 선생님께서는 이화를 위해, 여성을 위해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그 열매를 먹고 자란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께서 언제까지나 큰 어른으로 결에 계셔주시길 바랄 뿐이다.

아낌없이 내어 주신 선생님

문미란

(80년, 법과대학 동창회장, 미국변호사)

76학번으로 법정계열에 입학을 하고, 2학년 때 주저 없이 법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의 강의 때문이었던 것 같다. 선생님은 매 수업시간마다 우리를 갖 입학한 신입생 정도로 대하지 않으시고, 마치 학식 있고 존중받아 마땅한 대상을 대하듯이 숭고하리만큼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헌법을 잘 모르지만, 선생님의 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면 언젠가 그 경지를 이해할 것 같은 자신감을 갖게 해 주셨다. 그리고 그런 교수님이 나의 선생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법학과를 선택하고 첫 지도교수가 윤선생님이셨다. 늘 맛있는 사탕을 준비해 두시고 강의 때의 카리스마는 베어버린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만나주시던 선생님의 연구실을 들어설 때마다 벽차고 두근거리던 어린 마음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것 같다.

선생님께서 하버드로스쿨에서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나는 대학원생이었다. 돌아오시면서 선생님은 방대한 규모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 학문에 더욱 정진하고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 2년 동안 준비해서 컨테이너 가득 가져오신 자료들을 선생님은 귀한 보물 대하듯 하셨다. 그런데 곧바로 학장직을 맡게



아래 왼쪽부터 노정희(88), 전효숙(73), 윤후정 명예총장, 양정숙(87), 김정순(81) 동창. 둘째 줄 왼쪽부터 박애영(96년), 태자영(92), 문미란(80), 이한혜(80) 동창. 위 왼쪽부터 석인선(81), 박귀천(55) 동창.

되자 '너희라도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시며 그 보물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 덕분에 우리들은 한국에 앉아서도 미국 헌법의 새로운 흐름을 선생님께 배울 수 있었고, 많은 양의 최신 미국판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내가 나중에 미국로스쿨에 유학하여 한국과는 다른 판례위주의 영미법체계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미국 변호사시험까지 치룰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보물 같은 자료들과 가르침 덕분임이 분명하다.

따뜻하고 강직한 선생님

석인선

(81년,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선생님과 나의 만남은 긴 듯이 짧은 듯이 흘러 세기를 넘어섰다. 대학시절 헌법수업을 선생님께 듣지는 못했다. 그 강의가 개설된 학년에 선생님께서 미국으로 연구년을 가셨기 때문이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서 선생님을 지도 교수로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겐 참으로 큰 행운이었다.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지 내게 늘 관심을 기울이셨고 격려해주셨다. 돌아보면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삶 자체로 내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 정치격변기에 헌법 교수로서 살아간다는 것 특히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잊지 않고 바르게 견디며 연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일러주시고 몸소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삶, 여성주의에 입각한 주체적인 삶이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렵지만, 또한 그렇게 살아야하고 해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셨다.

내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늘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기억이 난다. 정말 이지 내가 선생님과의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배려 덕분이었다. 선생님께서 애써주셔서 내가 짧은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고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었다. 이화학당 이사장실에서 선생님을 뵈었다.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훤한 미소로 내가 떠나는 새로운 길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주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나는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격려의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이사장실을 나왔다. 선생님께서는 집무실이 있는 긴 복도에 나오셔서 내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가는 길을 지켜봐주셨다. 그때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내 뒷모습을 바라봐주시는 것을 느끼고 나도 여러번 뒤를 돌아보며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복도를 지나 돌아나왔다. 이국땅으로 연구의 길을 나서는 제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믿어주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지금도 복도 끝을 다 지나올 때까지 나를 지켜봐주시던 선

생님의 따뜻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울컥한다.

선생님께서 나의 스승님이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끝까지 기다려주신 선생님

노정희

(80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한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아이가 보인다. 5~6살 남짓이나 된 듯하다. 아무 맥락 없이, 그 작고 여린 손가락을 보면서 ‘저 아이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1982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선생님을 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 초년병 시절 나는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수줍은 학생에 가까운 편이었다. 우리 고시장 학생이라 불렸던 나를 포함한 촌뜨기 몇몇은 그 시절 늘 조금은 우울했고 많이 불안정했다. 아무튼 나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만이 목표인 양 서울에 올라왔고, 정보도 비전도 없이 선택한 법학과 서격대느라 졸아들고 있었다.

이느새 내 나이가 그 시절 뵈었던 선생님의 연세 정도가 되었다. 반대를 무릅쓰고 마련한 고시기숙사 ‘솟을관’에서 학생들이 저마다의 동굴에 갇혀 방황할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나이가 되었다. 언제나 저 멀리 앞서 가시면서도, 우리의 혼들림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던 선생님을 기억하며 걸어온 시간들이었다. 그리하여 미혹한 나도 이제 꿈을 꾼다. 나의 이익과 무관한 누군가의 앞에 밝혀진 등불이면 좋겠다고, 누군가의 다리를 일으켜 세워 좋은 세상을 함께 걷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말이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강인자 장학금’ 1억 원

‘이화 정신’이 ‘나눔과 섬김, 사랑’ 임을 모르는 이화 동창은 없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모교 ‘이화’는 우리에게 지식의 가르침 외에 스무살 이후의 값진 ‘삶의 행로’에 대한 지혜를 가르쳤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유명(幽明)을 달리한 아픔 속에서도 그 슬픔을 승화시킨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이번 호부터 하나씩 게재하고자 한다. ‘이화’에서 배운 ‘나눔과 사랑’이 생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사후(死後)에 볼 수 있다는 것도 경이로운 일일 것이다.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과 함께 남기는 ‘아름다운 기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편집자 주)



고강인자동창가족. 왼쪽위부터 손자김도형, 아들김승규, 사위박상설, 손녀박선진
아래왼쪽며느리 이은주 손녀 김나영, 남편김종대, 고강인자동창, 딸김미경 손자 리선준

내 어머니 ‘강인자’ 가 남긴 ‘이화사랑’

2014년 6월 23일 ‘강인자장학금’ 1억 원이 모교에 약정되었다. 2013년 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타계한 고(故) 강인자(가정관리 65) 동창을 기려 딸 김미경(영문 9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교

육학박사) 동창이 기탁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지만 앞으로 매년 어머니의 이름으로 생전에 어머니가 사랑하던 모교에서 ‘나눔’을 볼 수 있다면 큰 축복일



동구여중 교사 시절 인기 진행자였던 고 강인자 동창

수 있겠다고 딸은 생각했다.

1억 원이 김 동창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마도 살아생전 어머니가 가장 원하시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 망설임 없이 선뜻 기탁하게 되었다는 김 동창은 인터뷰 내내 눈물지었다. 이 기부금이 어머니 생전에 근검절약하여 모은 유산임도 밝혔다. 더불어 흔쾌히 동의한 부친과 남편도 고맙다고 했다.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장식하는 재벌가의 유산 상속 다툼이 문득 떠올랐다. 1억 원이 아무리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었다 하여도 평소 교회헌금이나 장애아돕기 등 김 동창의 기부와 봉사 정신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 장학금 기탁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와 아내인 강인자 동창의 삶의 끝자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가족 모두 힘을 모아 ‘나눔’을 행할 수 있다는 일이 경이로웠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어머니에 대한 큰 ‘사랑’ 때문이었겠지만 말이다.

아래 글은 김미경 동창이 어머니를 기리며 직접 작성한 절절한 딸의 사모곡(思母曲)이다.

매일매일 보고싶은 나의 어머니

2013년 11월 22일 갑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날 오후 엄마는 돌아가셨다. 누구보다 건강하셨던 엄마기에, 72세라는 젊은 나이셨기에, 장례를 치르고 엄마유품을 정리하면서도 실감이 안났다. 엄마는 매일매일 보고 싶다.

나의 어머니, 강인자 여사는 7녀 1남의 장녀로, 5

남 1녀의 맘더느리로서 일생을 책임감으로 살아오셨다. 고 3때 태어났다는 막내이모까지 늘 동생을 업고 다녔다는 엄마는 이화여중, 이화여고, 이화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하셨다. 그 외에도 늘 우수한 학생이셨고, 이화여대 문리대학 학생회장을 지내실 정도로 대인관계에 출중하셨다. 특히 이화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셔서 자다가도 이화에 관련된 일이라면 발 벗고 나가실 정도였다.

졸업 후에는 동구여중 교사,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 다양한 방면의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는데, 특히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들을 즐겁게 만드는데 뛰어난 재주를 지니셨다. 이는 엄마의 모든 친구 분들도 '강인자'를 떠올릴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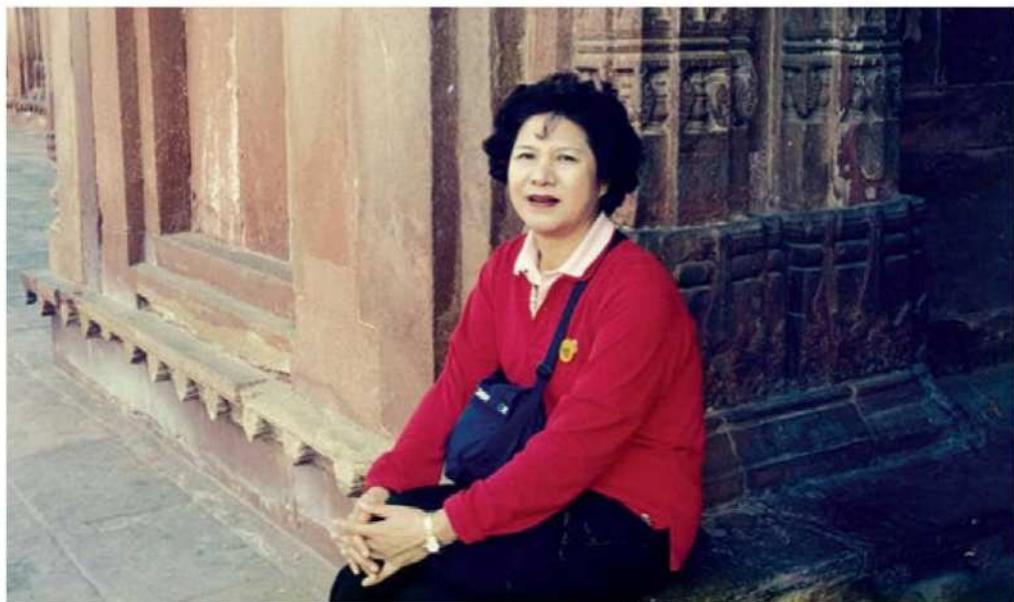
엄마는 당신의 1남 1녀 자식들이 모두 잘 컸음을

늘 자랑으로 여기셨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늘 공부하셨던 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엄마가 일생동안 보여주신 능력과 노력을 오빠와 나는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두 아이의 엄마로, 직장인으로 살다보니, 엄마가 얼마나 뛰어나셨는지, 그렇게 일찍 가시기에는 얼마나 아까운 분이셨는지 가슴 속에 사무친다. '엄마' 가 나에게 이렇게 큰 존재였음을 깨달으며, 엄마가 부탁하셨듯 이, 나도 그런 '엄마' 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엄마는 또한 근검절약으로 유명하셨다. 그 결과로 엄마와 같은 우수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마 엄마가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도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

글.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평소 친구들과 여행다니기를 즐겼던 고강인자 동창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 관장 송창주

가정학과(62), 이대 가정학과 석사. 저서 / 아! 이준 열사, 큰죽음 1000년을 기억하라,
'한국흔의부활', 이준 열사 헤이그에서 평화를 외치다. 한·화(화란어) 성경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의 불법성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호소하다가 순국한 이준 열사를 기리는 이준열사기념관을 헤이그 현지에 건립한 송창주관장을 이메일로 인터뷰하였다.(편집자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1972년 한국수출주식회사 네덜란드 지사에 발령받게 되어 9년을 봉직하면 이화여고교단을 떠나 네살, 여섯 살 자녀를 데리고 네덜란드로 가게 된 것이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준 열사와 만국평화회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1988년 서울상동교회에서 거행된 이준 열사 추모식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1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상동교회 담임목사님 일행과 한국에 있는 이준열사기념사업회

가 참석한 가운데 순국현지 추모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년에 한번 추모식을 치르다가 1995년 이준 열사의 순국현장인 옛드용 호텔(Hotel DeJong)을 인수하여 그곳에 이준열사기념관(Yi Jun Peace Museum)을 개관하였습니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사업은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어난 후예동포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중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 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준 열사께서 만국평화회의에서 자결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준 열사 일행은 일본의 방해와 당시 세계 열강들의 냉대로 만국평화회의장에 입장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의장 밖에서 '왜, 대한제국을 제외하는가' 등의 항의문을 세계에 발표하고(1907년 6월 27일), 그로부터 약 2주 후 숙소인 드용 호텔에

서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만국평화회의를 취재하러 헤이그에 몰려왔던 250여 명의 각국 언론인을 통하여 일본의 부도덕성과 대한 제국의 억울한 사정이 세계에 알려졌고 열사의 죽음에 한 품은 국내에서는 의병 활동을 비롯하여 항일 독립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준열사의 죽음은 국내적으로는 독립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송 관장께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인터넷 블로거들의 질문에도 상세하게 답변하는데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의 차이를 알려주십시오.

1905년 11월 17일 강제로 체결된 소위 을사보호조약(일본식 표현)은 합법적인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다는 전체 5조로 되어 있는 이 문서는 일본이 한국과 하등에 상의도 없이 작성하였고, 또한 국의 고종황제를 비롯하여 당시 한규설총리 대신 등이 결사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에서 특파되어 온 이등방문(伊藤博文)이 무력을 동원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 5적의 반역을 통하여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 아닌 불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약이 합법적으로 발효를 하려면 국가 원수의 최종적인 아인(眞印)을 찍어야 하는데 고종황제는 물론 이 조약을 승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인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 한일 강제합병 100주년을 기하여 이 조약이 무효임을 한국과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준열사기념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 입니까?

광복 51주년인 1996년 8월 15일 민족사관학교 학생 80명

이 전원 한복 차림으로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세계인이 되기 전에 먼저 확고한 민족정체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최명재 이사장의 교육철학 덕분에 영국 명문 이튼스쿨을 가는 길에 먼저 이준열사기념관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70여 명의 동교 학생들이 기념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념관 정문에 게양된 태극기와 기념관 안에 올려펴지는 애국가 등도 외국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더 특별했을 것입니다.

기념관 개관 20주년이 되는 내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현재의 기념관은 옛 드용 호텔 전체 건물의 약 1/3만 수리한 후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원은 나머지 2/3 공간을 전체적으로 수리하여 평화의 도시 헤이그에 20대 명소의 하나인 '이준열사기념관(Yi Jun Peace Museum)'을 확대 재개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잊지 말자, 을사늑약. Never Forget, Never Again'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의해 계속되는 역사왜곡,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탈북자, 북해 문제 등의 뿌리가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7일은 을사늑약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지 10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는 격언처럼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에서 시작된 이 운동에 전국민, 모든 이화동창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더불어 '이대인명록(2004년 발간)'에 제 이름이 '송창매'로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 받고 싶습니다. 2010년 정정 스티커로 바로 잡긴 했지만 다음에 발간되는 인명록에는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글: 박경희(신방 90, 이화동창편집위원)

한소엽 화학과 교수가 추천하는 2014 이화 유망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소혜

나노기술 산업화 이끄는 여성 리더의 선두주자



최근 영화 '명량'이 한국 영화사상 최대 관객 동원으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뛰어나고 잘 묘사된다. 역사 속의 훌륭한 리더들은 한결같이 전체를 볼 줄 아는 지혜와 경청의 자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목표를 향한 강인한 열정을 갖고 있고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와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역사 속의 리더들 중 여성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잔상이겠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이화여대는 여성 리더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한국 역사를 담당하여 개척해 나아갈 큰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소혜 박사를 미래의 리더로 소개하고자 한다.

조소혜 박사는 이대 화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쳤다. 2000년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 유학 길에 올라 박사학위와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2009년 국내 귀국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에서 현재까지 나노재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녀의 이력을 보면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렸다'라는 인상을 준다. 학부 3학년 시절 우리 연구실에 들어와 학부연구생으로 만났을 때부터 조 박사는 남다른 점이 있었다. 연구실의 궂은 일도 미だ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 이뤄내



한소엽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화학과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화학과 박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소혜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분자생명과학부 석사
미국 Northwestern Univ. 화학과 박사
미국 Scripps 연구소, 박사후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이런 자세가 연구실 선후 배들에게도 사기를 불리일으켰을 뿐 아니라 좋은 연구결과로 이어졌다. 그후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한결 같은 자세로 연구에 임해 오늘날의 이력을 이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조박사는 현재 KIST 내 다원물질융합연구소의 유일한 여성연구원으로 연간 약 38억 예산의 '에너지 변환효율 극대화를 위한 다원물질융합 구조 개발' 연구의 총책임자를 맡으며 리더십의 기량을 펼치고 있다. 과학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해 오는 조박사에게 주위 동료나 선후배가 종종 "이대에서 학.석사 기간 동안에 특별한 리더십 교육을 출중하게 받은 것 맞지요?"라는 칭찬섞인 질문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IST에는 소수정예의 이대 동문들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들이 펼치는 국가적 연구개발 분야의 눈부신 활약상이 이대의 교육철학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어, 훌륭한 리더로 돋보이는 것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조소혜 박사의 리더십은 모교 석사과정 학생 시절부터 잘 드러났다. 연구실 내의 선후배 관계뿐 아니라 학부 수업 조교의 역할에서도 그 잠재력을 일

찌감치 알아볼 수 있었다. 이대에서의 교육을 발판으로, 노스웨스턴 박사과정 중에는 한인 대학원생 대표를, 스크립스 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시절에는 재미 여성과학기술인협회(KWSE)의 총무직을 맡으며, 바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점에서도 잘 나타났다. 그녀의 리더십은 온화한 리더십이다. 경청하는 자세와 특유의 긍정적 태도에서 오는 소통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박사는 최근 국내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편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연구에 임한다고 한다. 이에 구형 티타니아 (titania) 나노입자의 양산화에 성공하였고, 이를 고품질 자외선 차단제, 전자종이소재 등 인간친화적 생활소재로 산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로 하여금 2014년 나노코리아 산업기술부문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을 수상 받게 하였다.

잡초처럼 키웠더니 어느새 튼튼하게 자라 푸른 잎 무성하게 우뚝 선 나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조소혜 박사도 시간이 갈수록 조직이 치밀하고 깔끔해져 어떤 충격에도 뒤틀리지 않는 견고함을 다지며 더 큰 미래의 리더로 성장해 나아가길 바란다.

기획특집

세계 최고 최초 지향, 우리 모교 이화여대 탐색 여섯 번째

한우리집, 대학원 기숙사, 국제기숙사 등
전인적 글로벌 핵심역량 갖춘 인재 양성의 산실

이화기숙사

개교 이래 국내외 최고, 최초를 지향하는 우리 모교 이화의 다양한 건물과 시설들을 시리즈로
집중 탐색하는 난을 마련하였다. 이 난을 통해 동창들이 모교를 찾아 자주 발걸음 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호에는 나눔과 섬김의 이화 가치를 중시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의 산실,
이화 기숙사를 소개한다. 모교는 지난 7월 22일 신축기숙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새로운 이화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편집자 주)





2016년에 완공 예정인 신축기숙사 조감도

재학생과 유학생 망라한 글로벌 빌리지

이화의 역사는 기숙학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1886년 5월, 메리 F. 스크랜튼 여사가 한국 최초의 여학교이자 기숙학교인 이화학당을 세운 이후, 현재까지 128년의 기숙사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정동 이화학당과 프라이홀 시대를 거쳐 1935년 3월 신촌으로 캠퍼스를 옮긴 후에는 현재의 진선미관이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이 끝난 후 창립 70주년을 맞은 모교는 1959년 9월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새 기숙사 빌링슬리관을 완공했다. 150개의 침실과 7백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대식당을 갖춘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사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현재 포스코관 자리에 있었던 빌링슬리관은 1999년, 현재의 한우리집이 완공될 때까지 40년 동안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이화인들에게 '내 마음의 기숙사'로 남아있다.

현재 이화에는 학부생 기숙사인 한우리집 외에도 대학원기숙사, 국제기숙사라는 세 종류의 기숙사가 운영되어 1천7백 명에 이르는 이화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에 집이 있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화를 찾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 70여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 교환학생, 교환교수들을 위해 모든 공지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외국인 거주자 대부분이 살고 있는 대학원기숙사와 국제기숙사는 이화의 대표적인 글로벌 빌리지로 불린다.



기술사 신축으로 삶과 학업의 질 향상 기회 마련

기술사가 대학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요즘, 모교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신축 기숙사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진 새 기숙사는 10,089m²(3,052평) 면적의 부지 위에 건물 6개 동으로 조성된다.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4개동(A~D동)과 지하 4층 지상 5층짜리 1개동(한우리집 C동),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1층 부속동으로 구성된다.

전체 면적은 61,118m²(1만 8,488평)로 현재 기숙사 '한우리집' 면적(5,627평)의 3.3배에 이른다. 공사기간은 2016년 2월까지 총 19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신축 기숙사가 완공되면 2014년 현재 8.2%(1,700명)에 이르는 기숙사 수용률이 20% 가까이 높아져 4천여 명의 재학생이 한꺼번에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스튜던트 푸어(student poor) 34만 명 시대인 요즘, 주거 문제와 삶의 질, 학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눔과 섬김을 중시하는 이화의 가치와 함께 인성 교육, 사회 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도 배울 것이다.



'한우리집' 로비에서 열린 '입소환영 음악회'



조형대 기숙사생들을 위해 조형대 교수들이 마련한 ‘파자마 파티’

전인교육 산실에서 만드는 ‘우리’ 개념

“이화의 정신적 가치와 역사적 맥락은 기숙사를 통해 고스란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집이 되고, 기숙사 모든 직원들이 부모처럼 여겨졌다는 사생들의 고백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기숙사를 통해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눔이나 통사라는 공적 가치를 몸으로 깨닫는 우리 사생들이 고맙고 대견합니다.”

이화기숙사 한우리집에 점호 제도를 없앴을 뿐 아니라, 한우리집 로비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문화와 충전의 공간으로 바꾼 최경실 기숙사 관장. 그의 얘기처럼 이화의 힘은 이화정신에 있다.

얼마 전 최경실 관장은 주례사에서 신랑신부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사랑을 딱 이웃까지만 넓혀주세요.”

앞으로 이화의 신축기숙사가 완공되면 한국 최초의 기숙학교인 이화학당에서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이화정신’이 더욱 널리 세계 속으로 퍼질 것이다.

더불어 재학생들은 강의실을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서 인성, 소통능력, 협동심, 연대감을 키우면서 ‘개인이 아닌 우리를 중시하는 이화형 글로벌 여성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문과 삶이 아우러지는 완전한 인격체를 키우는 요람으로서, 그리고 전인교육의 산실로서 이화 기숙사는 계속 굳건히 성장하리라 믿으며 다시 재학생이 되어 새 기숙사에서 한번 생활해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다잡았다.

글. 박경희(신방 90,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여대박물관 소식

이화동창을 위한 ‘전시설명회’ 신설

이화여대박물관은 가을을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상설테마전 <조선시대 여인의 삶>과 오용길 기증특별전 <마음이 머무는 풍경>을 비롯하여 근대기 우리나라 회화를 선보이는 가을특별전 <근대회화: 대한제국부터 1950년대까지>, <근대기의 우리복식>의 개막에 맞추어 이화동창만을 위해 준비한 전시설명회를 특별히 진행한다.

이화동창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설명회’를 통해 20여 만 동창들은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전통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화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이 가을에 기대해 본다.



■ 관람전시

2014 상설테마전 《조선시대 여인의 삶》 상설전시관
오용길 기증특별전 《마음이 머무는 풍경》 기증전시관
2014 가을특별전 《근대 회화: 대한제국부터 1950년대까지》 기획전시관, 현대미술전시관



《근대기의 우리 복식》 담인복식미술관

■ 일시 및 내용

10/22(수) 14:00~15:00
2014 상설테마전 《조선시대 여인의 삶》



오용길 기증특별전 《마음이 머무는 풍경》

11/12(수) 11:00~12:00

2014 가을특별전

《근대회화: 대한제국부터 1950년대까지》

《근대기의 우리 복식》

11/28(금) 11:00~12:00

2014 상설테마전 《조선시대 여인의 삶》

오용길 기증특별전 《마음이 머무는 풍경》

12/11(목) 14:00~15:00

2014 가을특별전

《근대회화: 대한제국부터 1950년대까지》

《근대기의 우리 복식》

12/26(금) 11:00~12:00

2014 가을특별전

《근대회화: 대한제국부터 1950년대까지》

《근대기의 우리 복식》

■ 5인 이상 단체 관람의 경우 사전 연락을 하면 정해진

일시 이외 개별 설명이 가능하다.

* 전화문의: #4696

* 신청접수: museumedu@ewha.ac.kr

쑥개떡 짜먹던 날



백복현

(영문 82)

쑥개떡을 먹어본 지 꽤 오래 되었다. 봄 나물이 나올 무렵이면 어머니는 밥솥 위에 얹어서 쪄낸 쑥개떡을 내 손에 쥐어주시곤 했다. 겨우내 익은 낡은 잡지책을 옆에 놓고 어서 날이 풀려 고물장수 아저씨가 만화책을 신고 동네에 나타나길 기다리던 봄은 내게 지루하기만 했다. 이를 눈치챈 어머니는 가끔 별식으로 내 지루한 봄날을 달래주셨던 것이다. 밥이 품드는 소리에 섞인 칼칼한 쑥내음의 김빠지는 소리와 함께 봄날은 하루하루 걸어만 갔다.

봄도 벌써 지나 입동으로 접어들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쑥을 캐던 처자들의 노랫소리도 아득하기만한 늦 가을 어느 날 L 선배님이 쑥개떡 만드는 법을 시연한다고 알리셨다.

어언 칠십 줄에 들어선 이화동창 L 선배님은 떡이라면 토론토에서, 아니 북미지역에서는 국보급에 해당하는 인간문화재다. 이 가을 날 어디서 쑥을 뜯어다가 쑥개떡을 만들까, 초봄 들에서 난 쑥을 혹시 냉동해서 재료로 쓰는 것은 아닐까 혼자 궁금했었다. 알고보니 L 선배님은 한국에 주문을 해서 쑥가루를 준비해오신 거였다. 부엌에 들어서니 가을 찬 바람을 녹여줄 따스한 김이 찜통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쑥개떡 시연을 위해 부엌을 오픈한 또 다른 이화선배는 찜통에 더운 물을 붓고는 한참 김을 올리고 있었다.

부엌에 토론토 이화동창 여섯 여자들은 L 선배님의 지시대로 곱게 뻗은 쌀가루에 쑥가루를 섞기 시작한다. 예전엔 쌀이 귀해서 밀가루를 섞어 개떡을 만들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름이 개떡인가. 웬지 개자가 들어가는 이름에선 천하고 상스런 느낌까지 받는다. 우리 동리에 아주 귀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개똥이였다. 천한 이름을 지어 주어야

잡신이 질투를 안한다고 해서 일부러 개똥이란 이름을 지어 불렀던 게다. 이름만 들어도 쑥개떡은 서민층에서 영성하니 만들어 먹던 떡이란 생각이 든다. 격식을 따지지 않고 되는 대로 만들어 먹던 떡이기에 개떡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제대로 된 재료에 정식으로 떡메로 치고 시루에 앉혀서 만든 찰떡과 차별화하여 그 격을 낮추어서 부른 서민의 떡이란 생각이 든다. 오죽하면 엣어른들은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 같아 알아들으란 말을 다 하셨을까....

그래도 나는 제삿상이나 명절 상에나 오르던 찰떡인 인절미나 절편보다는 봄 한철 먹어보는 어머니의 쑥개떡을 좋아했다. 쑥개떡을 한 손에 들고는 한없이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날에 대한 향수가 어찌면 가을 찬 바람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을 서둘러 선배의 부엌으로 돌리게 했는지 모른다.

저녁밥을 앉히신 후에 어머니는 내게 특별식을 만들려고 남겨둔 불린 쌀 한 줌에, 들에서 캐온 쑥을 절구에 넣고는 콩콩 절구질을 하셨다. 적당히 빵아서 아직 둉어리가 만져지는 쌀과 쑥으로 열기설기 반죽을 하셨고, 손바닥만한 개떡이 빛어질 즈음이면 밥솥에선 밥물이 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때 솔단지를 열고는 김이 막 오르기 시작한 밥 위에다 떡반죽을 하니, 둘들이 미시는 거였다. 쑥개떡이 제대로 익어 그 쫄깃쫄깃한 맛을 내려면 밥물이 한 소금 더 끓어 올라야 했다.

이제 우리는 엷은 쑥색이 나는 쌀반죽을 밀어 개떡을 빚기 시작한다. 어머님의 투박하고 거칠은 개떡이 아니라, 양중맞기까지 한 작은 개떡을 빚는다. 만들 어놓고 보니 호박씨, 포도씨로 장식까지 마친 떡은 개떡이라기 보단 화전에 가깝다. 이토록 쑥떡이 호사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떡은 쑥개떡이 아니라, 그저 쑥떡이라고 개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포크를 꾹꾹 눌러 빗살 무늬까지 새기니 쑥개떡은 이제 영락 없는 절편의 모습이다. 눈과 코를 호박씨로 심고 물끄러미 내려다본 쑥떡의 모습은 어릴 적 어머니의 솔단지에서 짜낸 쑥개떡을 한 쪽 받아주고 행복했던 내 얼굴 같기도 하다.

어머니는 나를 한사코 자신의 부엌에서 밀어내셨다. 매캐한 연기 반, 그을음 반으로 빼곡한 부엌에서 간혹 행주치마에 눈물을 닦아내실 적마다, 아마도 어머니는 고명딸을 검불 섞인 밥 짓는 시골로는 시집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셨던가 보다. 한사코 나를 아궁이에서 밀어내시며 그저 '너 좋아하는 책 보고 있거라, 얼른 개떡 짜주마' 하시는 거였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의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였다. 아직 다 타지 않은 잔불을 부지깽이로 내리칠 때마다 그을음과 함께 터디닥 불꽃이 타올랐다. 마른 잔솔가지를 골라 아궁이에 집어넣고는 불꽃이 재로 타오르는 동안, 그 소멸의 시간을 지켜보는 일을 사랑하였다. 무릇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따스한 온기와 종국에는 재로 화하고 말 혀망함이 어린 내 가슴에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 검불이 타는 연기와 열기로 어머니의 부엌은 늘 흐려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부엌은 언제나 따스했다.

저녁 밥과 쑥개떡이 뜸 드는 봄 날, 부엌 뒷마루에 앉아 저녁 아둠이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면 내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곤 했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쑥떡이 짜지는 소릴 들으며 앞마당 우물가에 심어진 수국이나 철쭉 같은 봄꽃들이 봉오리 맷는 소릴 들고 있노라면 평온한 저녁으로 나의 바쁜 마음도 저물어 갈 수 있었

다. 돌아보면 부엌 뒷마루에 앉아 쑥개떡이 익기를 기다리던 그 시절은 내 생애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침통에선 김이 오르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우리는 쑥개떡의 탄생을 맞게 되었다. 반죽으로 빚었을 때보다 더 진하고 선명한 개떡 속에 호박씨가 몇 개 박혀 있다. 살짝 위로 치켜든 호박씨 눈이며 전포도로 빚은 코는 저절로 웃음이 나게 하는 개떡의 모습이다. 그 개떡에다가 참기름까지 빨라담아놓으

니 이건 쑥개떡이 아니라, 어느 양반집 제삿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소곳하고 암전한 모습의 쑥떡이 되었다.

쑥개떡 아닌 쑥떡을 하나 받아줘고 나는 물끄러미 선배의 부엌에 서서 입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온 뿌연 연기가 한 줄기 어둠으로 흘러가는 세월 저 편 뜨락에 쑥개떡을 위한 살계집에가 말없이 서 있었다.

총동창회장상 수상소감 | 백복현(영문 82)

30년 만에 찾은 모교, 의미 큰 수상에 설레다

새벽 출근길, 리어뷰미러 속으로 따라오는 길은 길지 않다. 무꽃대 하야안 꿈길을 기듯 오늘은 삼십 여년 뒤로 달려간다.

지금쯤 새 학기를 맞아 성경한 어느 신입생은 아현동 고갯길에서 자취방을 찾고 있을까. 아니 이젠 오증 석 조건물 속, 원룸 열쇠를 받아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본관 옆 소요로를 지나 옛 도서관 건물 지하에는 허름한 구멍가게가 아직 문을 열고 있을까.

이 년 전 스무 살 딸아이와 학교 앞을 찾았다. '오리지널' 뒤김집에서 바삭바삭한 뒤김도 먹고 '기무' 분식점에서 주먹밥과 냉면도 먹고, 어느 머리방에서 머리도 다듬으며 마냥 즐거웠다. 그러나 남포등이 느리게 흔들리던 '파리다방'이 자리한 이 중 목조건물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기차가 지나던 이화교는 수상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생뚱맞은 학교 앞 풍경에 마치 남의 학교에 온 것 같았고 그 날 나는 교문을 들어서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지난봄, 금히 글을 보낸 후 잊고 지냈다. 서너 달 후에 들은 입상 소식에 조금 어리벙벙하지만 기쁘다. 모교에서 받는 상이기에 내게는 어떤 문학상보다 의미가 크다.

수상소식을 들은 후, 자주 도서관 뒤 언덕을 달려가 보곤 한다. 내 자리라고 명명했던 도서관 오층 자리에도 앉아본다. 책을 읽다 눈을 들어보면 어느새 날은 어두웠고 유리창 밖 자작나무 줄기는 하얀빛을 발하고 있었다. 주섬주섬 책가방을 싸서 도서관을 나선다. 아직 그 길에 서 있는 가로등이 달리는 자동차 리어뷰미러 밖으로 천천히 사라져 간다. 자작나무 줄기 하얗게 부서지던 거울 속의 그 길을 따라가면 그래도 C관 이층 강의실을 찾을 수 있으리라. 처음 파마를 한 어색한 머리로 앞자리를 지키고 있던 스무 살 친구도 만날 수 있으리라.

그 길을 찾아 나설 말미를 만들어준 총동창회 관계자들과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린다. 토론토 동창에게도 감사한다. 남의 땅에도 우린 용감하게 쏙을 심었다. 오월이면 선, 후배들과 그 쏙을 뜯으러 가고, 찬바람 부는 입동이면 같이 모여 쑥개떡을 짜먹었다.

삼십 년 만의 모교 방문을 앞두고 운전대를 잡은 마음 설레는 아침이다.

총동창회 소식

총동창회주최 최경희 신임총장 취임 축하연



이화여대 제 15대 최경희 총장 취임 축하연이 8월 20일 오후 6시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에서 총동창회 주최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모교의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총동창회 최명숙 주영희 장의순 전회장, 윤순희 김순영 고문 등 내외빈을 비롯하여 각 대학, 대학원 및 과, 지회 회장 및 2014 올해의 이화인, 총동창회 후원이사 등 130여 명이 모여 최경희 신임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김효신(의학 84) 총무의 사회로 진행한 이 날 축하연에서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화는 이제 한국의 우수한 여성지도자와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여성인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제3세계 등 해외 여성지도자를 맡아 키우는 것까지로 확대되었다”며 “21C 대학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시대적 변화를 극복하고 명실상부 세계 최고 대학으로 모교를 자리매김 토록 하겠다는 최경희 총장님의 이화 DNA의 비전

과 포부가 우리 20여만 졸업생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앗습—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장님의 겸손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하였다.

이어서 강무림 연대교수가 박성희(성악) 동창과 함께 정호정(피아노) 동창의 반주로 특별한 축가를 불러 참석자들에게 축하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축가 후 조종남 회장으로부터 축하의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받은 최경희 총장은 동창들에게 “동창들의 따뜻한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 죄선을 다해 ‘이화’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꿈과 도전을 가진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면서 “이화 DNA 비전의 적극 홍보를 위해 동창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김순영 고문의 견배 제의와 윤후정 명예총장의 덕담 등 화기애애한 만찬을 가진 후 참석자 모두 기념촬영을 하였다.

총동창회소식

정기임원회

9월 17일 이화삼성문화관 8층 총동창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임원회에서는 총장 취임 축하연 평가 및 11월 24일에 개최할 '이화인의 밤' 행사 준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이화인의 밤' 행사는 예

년에 비해 많은 이화 동창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사 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할 제 10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접수 보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제 10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9월 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11월 24일(월)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9명의 선정 위원들은 9월 30일 총동창회 소회의실에 모여 각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1차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중 실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당연직 위원

- 총동창회 고문 | 김순영(약학 62)
총동창회장 |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 문화부장 | 박경임(식약 73)
이대 대외협력처장 | 오진경(서양 81)
이대 기획처부처장(홍보) | 유성진

선출 위원

- 총동창회 부회장 | 박유나(도예 81)
총동창회 홍보부장 |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총무 | 김효신(의학 84)
간호대학 회장 | 김진향(간호 73)

역대 수상자

- 1회 2005년 박진숙(심리 58) 부산매실보육원 원장
2회 2006년 김행자(불문 64) 광주 로렌시아의집 원장
3회 2007년 방숙자(정외 56) 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장
4회 2008년 윤애리나(간호 59) 부산 자매정신요양원 원장
5회 2009년 박양미(제약 82) 아프리카 선교사
6회 2010년 강선희(법학 61) 서울 중앙지방법원 지원봉사
7회 2011년 신경희(특교 84) 네팔 선교사
8회 2012년 최재명(사회복지 66) 경산 복지재단 이사장
9회 2013년 김승자(불문 64) 대전애육원 원장

선교부 소식

제31차 단기선교학생 환송회 가져

6월 17일 재학생들의 방학 중 단기선교를 격려하기 위해 동창 및 동창선교사, 재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진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가 있었다.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이화의 어린 딸들이 선교의 사명을 안고 나가오니 복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한 이 날 환송회에서 양명수 교목은 ‘바람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모로부터 첫 번째 생을 나고, 예수님을 통해 두 번째 생 즉 거듭남으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남은 부모가 나를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부모를 섭기는 것, 내 의지와 신앙으로 모시는 것이다. 처음 부모에게서 난 것이 한 평생을 좌우한다면 두 번째 출생은 영원을 좌우한다”며 “오래 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바람에 날려 이곳 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왔다. 이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바람에 날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사용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열방의 씨앗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현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에 알리주신 것들이 있을 것이므로 겸손히 존중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바란다.’는 이찬우 선교사(송용희 선교사 부군)의 격려가 있은 후 재학생들은 오찬을 하며 동창선교사들과의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겨울에 있을 32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김옥수 동창 대한간호협회 제35대 회장 당선 축하연



간호대학

회장 김진향(간호 73)

김옥수 동창, 대한간호협회 회장 당선 축하연 개최

6월 20일 모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제35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옥수 동창의 당

선축하연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종남 총동창 회장, 김진향 간호대학 동창회장과 간호대학 증경 회장, 명예교수를 비롯한 동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참석자들은 앞으로 대한간호협회를 이끌 어가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김옥수 동창에게 많은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약학대학

회장 정용희(약학 75)

6월 정기임원회

정기임원회를 6월 25일 가페 루치아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정용희 회장은 인사와 함께 5월

30일 동창의 날 행사에 졸업50주년을 맞은 15회와 졸업30주년을 맞은 35회, 올해의 이화인이 참석했고 약대가 해마다 참여하는 합창제는 세월호사고로 열리지 않았으며 회보경연대회에서는 은상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서기 및 회계보고, 주홍장학회, 약연후원회, 개국동문회, 각 부의 경과보고와 안건논



의로 세월호사고로 연기한 화합의 날 행사를 9월 23일에, 각 기의 대표가 참석하는 9월 정기 임원간사회는 16일에 하기로 정하였다. 7월 5일 건축기금모금 추진위원회는 동생 고 박수현(약학 15회) 이름으로 약대건축기금으로 3억 원을 기부한 박수자 동창(의학 64)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동창회보인 '동창회 소식'을 8월 5일 발간하여 회원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자연과학대학

회장 유영숙(화학 77)

동창회 신구 임원진 상견례

8월 4일 광림교회 지하식당에서 신구 임원 상견례를 하였다. 먼저 지난 2년 여 동안 동창회장을 지낸 변희숙 전임회장(생물 69)의 퇴임소감에 이어 KIST에 근무하며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유영숙 신임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또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각 과 대표로 참석한 신구임원진들이 함께 모여 회기애 애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나누었으며, 특히 신임 임원진은 지난 2년 여 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쓴 전임 임원진께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9월 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신임회장의 주관으로 정기 동창회 임원 모임을 갖고 10월 22일로 예정된 자연대 동창회 가을 야유회 준비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더 많은 동창들의 야유회에 참석할 수 임원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차기 모임을 약속하였다.





경영학과

회장 손향아(81)

창립 50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6월 3일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경영학과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경영학과 22기 '홈커밍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50주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제 14대 김선옥 총장을 비롯하여 조종남 총동창회장, 이경옥 이영희 연합회장 등, 전 현직 교수 20여 명과 동창, 재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어느덧 50년의 수령으로 성장하여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약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영학과에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의 요람, 세계 경제 도약의 주인공이 되는 경영학과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경영학과 동창회에서는 손향아 동창회장을 중

심으로 동창회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1억 동창장학기금 모금 활동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국내외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1억 4백만 원의 장학금이 모였으며 이는 대외 협력처를 통해 매년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훌륭하고 유능한 여성 경영인재 양성에 더욱 기여 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이화경영인상 '은 22기 손정 (Shooting Gallery Hong Kong 공동대표/감독) 동창이 수상하였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동창의 날 행사에서는 매년 경영학과 홈커밍데이 행사 시 발간되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경영학과 현재 모습과 동창 선후배의 동정을 전하며 소통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소식지인 '이화경영' 동창회보가 3년 연속 우수 동창회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기독교학과

회장 정인숙(76)

바자회 수익금 일부 선교 기금으로 지원

6월 12일 열린 총동창회 대바자회에 앞서 두 달 여동안 풍기 인천 제품과 지리산 고사리를 팔아 모은 동창회 기금 중 280만원(김명순 선교부장 개인후원 50만원 포함)을 8월 11일 이수옥 선교사(기독 64)가 운영하고 있는 당고개 떨북청소년 그룹홈에 선교 기금으로 지원하였다.

도예과

회장 한희선(84)

도림(Dorim) 전시회 개최

도예과 동창모임인 '도림(Dorim)'이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陶林

: 도림展

The 35th Exhibition of Ceramic Department Alumni,
Ewha Womans University

Ceramic
Convergence

Ceramic
Convergence

'세라믹 컨버전스 2014'라는 상징적 제목으로 선후배 동창들이 참여하여 조형도자전반과 공간을 구성하는 설치작업, 다매체 작업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2014년 현재의 도예 트랜드와 도예의 다양한 가능성은 물론 '2014년 현재

세계 속의 한국에서 도예의 다종다양한 현상과 도예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다.

섬유예술과

회장 김옥광(80)

손정례 교수 퇴임 연회 및 오사카 일본 공예협회 교류전

손정례 교수 정년퇴임연회를 6월 26일 롯데호텔에서 이대 교수, 동창회 회장단을 비롯한 선배동창, 친지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대학원생들과 재학생 대표 등 모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김옥광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김선희 선교부장의 기도와 김세희 성악가의 '예수 이름으로' 축가가 울려 퍼졌고 회장단 대표로 이효범, 탁지숙 동창의 축사와 각 동창전시회 대표들이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손정례 교수의 자수 강연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기립 박수로 손 교수의 수고와 혁신에 화답하였으며 김옥광 동창회장의 마무리 애찬



기도가 있었다.

섬유예술과 동창들로 이루어진 이화섬유조형회(회장/봉지희)에서는 2000년부터 오사카 일본 공예협회와 교류전을 열고 있는데 이번에도 8월,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교류전이 열렸다. 교류전의 주제는 '아름다움과의 만남'으로 실용성을 지닌 아름다운 공예품을 선보였다. 일본 작가 37명과 한국 작가 18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 오프닝에서 봉지희 회장의 작품의상을 입은 연주단의 축하공연이 있어 흥겨움을 한껏 더했다.

영어교육과

회장 이미옥(79)

50주년 기념 50km 걷기운동 완료

작년 11월부터 매월 셋째 토요일 아침에 동창들이 만나서 5km씩 걷는 운동 '50km 고고고'를 전개하여 이번 8월 23일 우연산 서초둘레길을 걸음으로써 총 10회 50km 걷기를 완료하였다. 남산북측둘레길

을 시작으로 서초서리풀공원, 방이동몽촌토성, 뚝섬 서울숲, 동작동 현충원, 일원동 대모산둘레길, 북아현동 안산둘레길 등을 걸었다. 이를 통해 체력단련은 물론 약 1시간 30분 정도 걷고 난 후에 갖는 즐거운 식사로 우정도 쌓을 수 있었다.

약 40명의 동창이 참여,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시행한 결과 '50km 고고고'가 완료되어 성취감은 물론 참여자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거리로 남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9월 25일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힙창단이 조직된 것도 자연스럽게 선후배간에서도 뜻을 모으게 되면서 가능했다.

중어중문학과

회장 이호정(87)

총동창회 주최 대바자회 뒷풀이 모임 가져

8월 5일 동창회 회장 자택에서 지난 6월에 있었던 이화총동창회 바자회에 중문과 판매대의 판매원으





로 참여했던 동창들이 초대되어 바자회 뒷풀이 모임을 가졌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창 판매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바자회 결산을 보고하고 수익금의 장학금 기탁을 자축하며 점심식사와 다과를 함께 나누었다.

초등교육과

회장 박정서(81)

회보 발간 준비 Summer 모임

8월 12일 각 기 대표와 강서교육청 신하 교사들이 함께 Summer모임을 가졌다. 이 날 더위와 휴가가 겹쳐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모교 앞에 위치한 애슬리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자유롭게 담소하면서 선후배간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특별히 올해로 제 20호를 맞는 초등동창회보의 특집 발간을 앞두고, 좀 더 발전되고 유용한 회보발간을 위해 각 기별 동기들의 소식도 모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얻으며 회보 원고를 준비하고자 하는 모임이었다. 제1호 창간호부터 시작하여 십여 년 동안 회보 발간에 직접 기여한 오섭자(64), 이현숙(71), 설옥희(72) 동창의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으며 이 날 강서 교육청 신하 현직교사들의 참석에 감사를 전했다.





남가주지회

회장 장계원(도서 76)

임원회 및 가을 배꽃회 모임 가져

6월 28일, 7월 24일, 8월 19일 세 번의 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15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9월에 있을 선배와 함께 하는 추석맞이 잔치를 위한 세부적인 준비사항과 샌디에이고 일일 관광에 관하여 논의했다.

한편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며 봉사활동,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배꽃회 모임이 6월 28일, 7월 26일, 8월 30일에 있었다. 이번 회기에는 캘리포니아 선교지에 대한 보고와 이영애 선생님의 생신 축하시간을 가졌으며, 이 대 교목이었던 조찬선 목사께서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었다. 현재 97세이신 조 목사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배꽃회 회원들을 격려하였으며 7월 14일에는 회원 10여 명이 LA County Museum에서 전시되고 있는 조선왕조 유물전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관람 후에는 LACMA 식당에서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Lee & Lee Gallery에서 열린 예정인 녹미전에 관하여 논의했다. 현재 20여 명의 회원들이 신청을 했으며, 그중 90학번 이후의 동창도 9명이다.

또한 7월 14일, 2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골프 대회를 가졌으며 선교부에서는 7월 16일 올림픽 양로원을 방문하여 합창으로 노인들을 위로하며 봉사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있는 선교부는 열방에 흘러져 있는 동창 선교사 130여 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각지에 선교비도 후원하고 있다.

뉴욕지회

회장 박영숙 (경영 86)

모교 연주단 및 유아교육과 재학생 지회 방문

6월 13일과 14일 UN 및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Beautiful Mind 연주를 위해 모교 배일환 교수(첼로)와 곽은아 교수(가야금)를 비롯한 장애인 연주단이 함께 뉴욕을 방문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7월에는 정기모임을 대체하는 바베큐모임을 김성혜(서양화 85)동창 자택에서 가졌다. 한편 8월 18일에는 세종문화재단이 실시한 여름캠프 참석자 뉴욕을 방문한 모교 유기숙 교수를 비롯한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뉴욕동창회가 박영숙 동창이 운영하는 맨해튼 소재 반주식당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었다.



독일 오스트리아지회

회장 이숙희(사회사업 73)

지회 연합 논의와 신임회원 확보에 주력



6월 28일 정기 모임을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에 있는 바첸하우스 레스토랑에서 가졌다.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지회를 잘 이끌어 온 전 회장단(회장 이순애, 부회장 양명숙, 서기 권채란)과 새 회원 4명, 험부르크에서 마인츠로 이사한 김군희(영문 70)동창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회장단 이숙희 회장(사회사업 73), 성명숙 부회장(조소 83)과 추우림 서기(동양화 07) 등 신임 임원진은 모두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이순애 전 회장은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대표들의 역할이 크다면서 많은 활동을 신임 임원들에게 부탁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차 동창 주소록을 확인 점검하기로 하고 베를린 리포터와 신문 광고를 통한 신임회원들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도 활동계획과 지회연합을 논의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보낼 것을 결정하였다.



멜버른지회

회장 안수산(영문 84)

신입회원 환영회 겸한 세 번째 정기모임

9월 5일 박혜진(독문 97)동창 자택에 모여 2014년 세 번째 모임을 가졌다. 각자 한 접시씩 음식을 준비하여 담소를 나누었는데, 이 날 처음 참석한 성미령(법학 75)동창과 서수진(국문 05)동창을 환영하며 가정 법률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시애틀지회

회장 박정혜(체육 71)

기금 모금 음악회와 정기 야유회 가져

6월 19일 이지숙 동창 선장에서 이해연(피아노), 조연자(첼로), 박경희(바이올린) 동창의 연주회가 있었다. 임지숙(바이올린 듀엣), 박정혜(보컬) 동창이 친조출연 했으며 다함께 '보리밭'과 '아름다운 금강산'을 합창하였다. 1600불의 기금이 모인 이번 음악회

는 30여 명의 동창이 참석, 임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7월 3일에는 하윤에 동창 자택인 체리농장에서 맛 있게 익은 체리를 따면서 오찬을 나누었다. 8월 23일 김정혜 동창 자택에서 열린 정기 야유회는 약 40여 명이 모여 임원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과 흥성희 동창이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LA갈비로 오찬을 즐겼으며 정미호 동창의 인도로 게임을 하며 푸짐한 선물도 받았다. 김예자, 오혜숙 고문은 매년 야유회를 위한 기금을 보내오고 있다.



신시내티지회

회장 김영채(영문 59)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10년 역사의 지회

2003년 9월 26명으로 발족한 지회가 10년의 역사를 채웠다. 작은 한 알의 겨자씨로 시작은 하였으나 빛과 소금이 되는 알찬 지회가 되고자 노력하는 지회는 일년에 4번의 만남을 통해 모교와 총동창회 소식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지난 10년간 지회를 위해 회장 김영채(영문 59), 총무 김혜선(외교 69), 회계 배영자(신방 69), 서기 강순명(약학 71) 임원 등이 수고하였고 금년도 총동창회비를 서울에 보냈으며 '전배라면' 장학모금에도 참여했다. 또한 뉴욕 이화국제재단에서 주최하는 2016 모교 130년 기념 장학금 모금운동에도 많은 회원들이 500불(1인당)을 약정했다.

지난 5월 9일 모임에는 특별강사를 초빙해 '의학연구의 신비함을 배울 기회도 가졌다.



아틀란타지회

회장 김정희(약학 79)

한인회관 건립 기부금 전달과 장학금 수여식

아틀랜타 지회는 매달 모임을 갖고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6월 모임은 신입회원 김아자(의학 63) 동창자택에서 '난기르기'에 대한 강의와 정성껏 준비하신 오찬을 함께하며 아름다운 정원에서 즐거운 모임을 가졌고, 7월 모임은 총 35명이 참석하여 임시총회와 더불어 7월 생일축하와 새로 참석한 동창을 환영했다.

임시총회에선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자 전원에게 호텔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새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1000불로 책정하였다. 2015년 지회연합회 총회준비로 총회 임원을 임명하고 7월 말까지 2015년 총회 장소를 결정하기로 하고 10월 말까지 주소록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7월 28일에는 새로 이사한 한인회관을 방문하여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 1000불을 오영록 한인회장에게 전달하였으며 31일에는 2015년 지회연합회 총회 장소로 Crown Plaza Hotel(at Lavinia)을 선정했다.

8월 8일 한미 장학재단 남부지부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장학금 1000불을 하승우군(University of Georgia에서 Nutricious Science 전공)과 오은경 동창의 외손자에게 각각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 많은 동창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8월 모임은 최형주 부회장의 개회사와 조성숙 동창의 기도로 시작하여 2013년 워싱턴에서 열렸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영상을 감상했다.

이 날 성정순, 조성숙 동창이 고문에 추대되었고 성정순 교수께서 88회 생신을 맞아 축하를 받았으며, '동창회 기금마련 경매행사'도 있었다.

8월 15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 6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 한인회와 더불어 참석하였고, 동창 유복렬 부총영사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조윤정 동창은 한인회를 위한 기도문을 써서 한인 회장에게 격려로 전달하였다.

알래스카지회

회장 천규운(사학 81)

지회 결성 15년, 적은 회원으로 장학금 모아

타지역 손님 방문과 연이 낚시 등으로 바쁘고 짧은 알래스카 여름을 즐기고 지난 9월 5일 가을 정기모임



을 가졌다. 5월 2차 정기모임 후 지회는 국제재단을 통한 장학구좌 원금 일만 불 적립을 완수하여 내년부터 모교 후배 장학금으로 지불될 것이다.

지역 특성상 현재 7명의 정회원이 있으며 1999년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처음 지회 대표로 참석한 천규운(사학 81) 동창의 Seed Money 300불을 시작으로 14년간 연회비 납부를 전 회원이 동참하여 비록 작은 지회지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

비록 무산되었으나 파주캠퍼스 기금으로 1,000불씩 쾌적한 동창 4분(김연순, 백도숙, 김명순, 천규운)과 노숙자와 불우가정 지역 단체 및 한인회 연계 장학금 지급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회 결성 15주년 동안 최다 횟수 참여 동창은 김연순(화학 59), 김명순(간호 62), 김수연(신방 86) 동창 등이며 지난 5월 말엔 백도숙(영문 59) 동창이 생기

리지 한국학교 창립멤버로, 김명순(교육 60)동창은 최장수 부부 공로상으로 개교 30주년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10년간 노숙자 봉사에 헌신한 천규운(사학 81)동 등 열심히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동창이 대다수이다.

워싱턴디씨지회

회장 김지완(도서 89)

취미별 소그룹 모임 활성화 지원 지속해

2014년도 목표인 취미별 소그룹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많은 모임을 계속하였다. 6월 7일엔 최숙자(도서 69)동창 자택에서 40명이 넘는 동창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전반기 신입회원을 위한 환영회 및 대 선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특별히 39년 보육과를 졸업한 윤순자 대 선배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현재 한국 음악과(기문고 전공)에 진학 중 American University에 교환 학생으로 온 황

주현(2015 졸업 예정) 동창의 특별 연주 시간이 있어 더욱 흥겨운 만남의 시간이었다.

6월 11일 이화골프 3번째 모임이 있었고, 13일엔 한국에서 방문한 설치 작가인 이은숙 동창 전시회 Opening Reception 및 '설치 예술' forum이 한국 문화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작가는 특별히 작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초대되어 자리를 빛낸 동창이다. 6월 14일엔 황정아(간호 71)동창 자택에서 황동창의 주도하에 떡 만들기 강좌가 열렸으며, 6월 20일에는 이역자(국문 69)동창 자택에서 수필작법 세 번째 강의를 들었다.

7월 9일에는 이화골프 4번째 모임이 열렸고 7월 12일엔 김지완 동창 자택에서 신입회원 환영회를 가졌다. 7월 18일 이화문학 모임의 field trip으로 함께선(피아노 79)동창의 인솔하에 Library of Congress를 방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8월 1일 우래옥에서 이화 합창단을 발족하여 윤종화(생물 78)동창이 음악부장, 반주는 유진(피아노 97)과 김예슬(피아노 10)동창이, 지휘는 구성희(성악 86)동창이 수고하기로 하였다.

8월 15일 함께선 동창과 함께한 California Roll 만들기와 8월 22일 이화 합창단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자카르타지회

회장 강혜경(간호 77)

정기모임에서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며 기도

5월 30일 롯데 애비뉴 MAD에서 13명의 동창이 참





석하여 3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롯데에 근무하는 막내 전병진 동창이 오랜만에 참석하였고 한정수(국제사무 73)동창의 차녀 혼인식을 함께 축하했다. 이 날 2년 동안 총무로 수고한 지윤아 동창의 송별회와 오현정(작곡 91)동창 시부상이 있어 함께 애도하며 슬픔도 함께 했다.

한편 임수경(동양화 86), 류경미(전산 88)동창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한국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함께 기도했다.

토론토지회

회장 홍현정(피아노 82)

야유회와 다양한 동호회 활동으로 친목 도모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균교의 예쁜 농장에서 여름 야유회를 가졌다. 많은 동창들과 가족 등 69명이 참석하여 함께 뜻자리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식사도 하고 줄다리기, 풍선 터뜨리기 등 신나는 게임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해에 이어 2014년에도 토요걷기회, 성경 공부반 그리고 골프교실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활



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동창들이 기다려왔던 토요 견기모임이 6월부터 8월까지 있었으며 동창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 토론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인 에드워드 가든에서 모여 산책도 즐기고 즐거운 담소와 준비해온 다과를 함께하면서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 공부반 모임은 매월 1회 동문들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창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선 후배간의 우정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 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매월 두번째 화요일에는 이화 골프 모임으로 8월 16일에는 스테이션 클릭 골프장에서 2014년 대학별 골프 토너먼트 시합에 참가하여 우천 속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시합에 참여하여 우승을 거두었다.

한편 9월 5일 음악이 함께 하는 전시회 'Harmony of Ewha'를 개최한다.

녹미회 중심의 이화 미술인들의 작품 전시와 함께 이화 음악인들의 연주, 그리고 가을을 노래 할 싱어 룸이 어우러진 멋진 행사이다.

이화이지회

회장 오해숙(사회 79)

소녀의 마음으로 함께한 즐거운 모임

지난 5월 31일 타운에 있는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선후배 동창들이 많이 참석하여 좋은 음식을 서로 나누며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다.

특히 게임하는 동안에는 시간을 돌려놓은 듯 소녀의 마음으로 맘껏 웃을 수 있었던 즐거운 모임이었다.



동창소식

졸업 연도, 가나다순 계재

이영자(작곡 54)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며 이대음대 교수, 한국여성작곡가 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이 동창이 8월 29일 '아픈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영자 작품 연주회'를 열었다. 이 날 음악 회는 특별히 김남조 시인의 미수(米壽)를 맞아 헌정하기 위한 것으로 박경자 동창의 시낭송도 있었다.

김예자(신방 60)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 상임고문인 김 동장(미국명 리아 암스트롱)이 Washington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타코마 자선단체인 '타코마커뮤니티재단(GTCF)'의 홍보 동영상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

김태련(실리 60)

베스트버디스코리아 회장인 김 동창이 지난 8월 13일~14일 푸르지오밸리 갤러리에서 '2014 베스트버디스코리아 활동 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는 베스트버디스코리아에서 만난 장애우와 비장애우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며 만든 작품들을 전시·판매하는 자리로 판매수익금은 베스트버디스코리아 활동운영비로 후원된다.

도문희(서양화 61)

도 동창이 초대전을 7월 10일~8월 10일까지 코엑스 현대백화점에서 열었다.

이춘자(약학 62)

미주 지역에서 사진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 동창(미국명 황 춘자)이 7월 26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자신의 천연색 사진이 걸들여져 있는 시집, '파피꽃들의 왈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김영교(영문 63)

미주 문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시인 겸 수필가인 김 동창의 일곱 번째 시집인 '흔적'의 북 사인회가 6월 18일 한미교육원에

서 열렸다. 김 동창의 문학관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된 북 사인회는 미주한국문인협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서정자(법학 63)

AM 채널(1230 AM, 1450 AM)로 워싱턴주 전역을 가청권으로 하는 매체인 워싱턴 라디오한국 사장으로 한미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서 동창이 창사 17주년 기념 수기 공모를 한다. 주제는 '라디오한국이 한인사회를 위해서 할 일'과 '라디오한국과 나'이다.

정금숙(A 국문 63)

재미시인협회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하며 시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 동창(미국명 문금숙)이 재미시인협회가 주관하는 2014년 재미시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6월 19일, 로스앤젤레스의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조율리(영문 63)

조 동창이 월간순수문학 6월호 수필 부문에 '매일 새벽이 오면'의 1편으로 신인상을 수상하여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성기순(설예 69)

6월 24일 한국문화원 주최로 매년 개최하는 미국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제 9회 '한국역사와 문학 세미나'에서 성 동창이 민화 Workshop을 가졌다. 미주 각 지역에서 6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화에 대한 이론, 파워포인트, 부채에 모란 그리기 등이 실습되었다.

김영순(무용 70)

뉴욕에 거주하는 김 동창이 이끄는 'White Wave Young Soon Kim Dance Company'가 6월 19일~22일 'Brooklyn Academy of Music'에서 한국인 안무가로서는 처음으로 공연하였다.

김화진(사생 74)

미주에서 수필가로 활약하고 있는 김 동창이 6월 '현대수필' 수필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시간의 메아리'로 어머니를 화상하는 글이다.

박운주(서양화 76)

박 동창이 6월 8일~13일 삼성동 조선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신경립(간호 76)

이대 간호학과 교수, 대한간호협회장 등을 역임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신 동창이 9월 3일 열린 제 3차 당 전국여성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장영란(설유디자인 76)

설유디자인을 전공한 장 동창이 6월 16일~20일 수원대학교 갤러리에서 현대자수 개인전을 열었다.

김효정(서양화 77)

'Like Mother Like Son(강석현)' 을 주제로 7월 10일~8월 10일 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임정희(가정 79)

가정대학동창회 회장인 임 동창이 대통령직속국민대통합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최현덕(철학 80)

코스타리카 국립대의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부문 교수인 최 동창이 7월 1일 5년 임기의 교황청 문학평의회 자문위원에 임명되었다. 총 12명의 자문위원 중 아시아인은 최 동창을 포함해 2명이다.

박경화(서양화 82)

학가인 박 동창이 6월 24일~7월 5일 Far Beyond Gallery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강애란(서양화 83)

8월 28일~10월 26일까지 '강애란 개인전' 을 통의동 갤러리 시문에서 개최한다.

이희정(영문 83)

워싱턴주 홈서비스 매니징브로커(공인중개사)인 이 동창이 2년간의 노력 끝에 페더럴웨이시로부터 시 정부 소유 부지 사용을 승인받아 '한국 정원 조성사업' 을 향후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는 물론 등포사회 및 한국보훈처와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미영(교심 83)

미주에서 등포 차세대 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 역사문화를 가르치는 최 동창이 7월 5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된 32차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임기 2년의 NAKS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미옥(서양화 84)

6월 3일~17일 테헤란로에 있는 Gallery imazoo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해련(경영 84)

6월 3일 한국 전열화학공업(현 태경산업)이 모래가 된 송원그룹 회장으로 김 동창이 취임하였다. 송원그룹은 연매출 오천억 원에 달하는 산업용 기초소재 전문제조 중경기업이다.

정연경(문정 85)

이대 문현정보학과 교수인 정 동창이 8월 1일자로 이대 중앙 도서관장에 취임하였다. 문현정보학과 교수의 도서관장 취임으로 도서관계의 선두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교 중앙도서관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 경(서양화 86)

개인전을 6월 25일~7월 1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었다.

남연숙(도예 86)

6월에 괌, 필리핀 주최로 하는 아트쇼 'Obra IV' mf 위해 작품을 괌 Agana 쇼핑센터에서 전시했으며 7월에는 작품 'GAX VI' 를 The Plaza Shopping Center에서 전시했다.

이숙연(서양화 88)

'이숙연 개인전' 을 7월 23일~28일 인사동에 있는 아라아트 센트에서 열었다.

김정수(독문 92)

이대 북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단국대 한국문화 기술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한 김 동창이 7월 1일자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로 부임했다.

왕명숙(종을 93)

스페인 음악 연주가 전문인 왕 동창의 독주회가 열려 한국초연으로 W. Griffths의 곡을 연주했다. 이번 독주회에서 스승인 맨하탄음대 Zenon Fishbein 교수를 추모하는 곡을 연주하여 더욱 의미있었다.

김은영(약학 96)

9월 11일 한국 BMS 제약이 영업마케팅 총괄 책임자인 김 동창을 신임 사장에 선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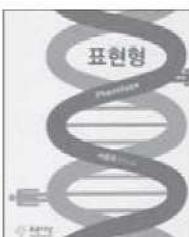
성대현(장식 63), 성기순(설예 69),

박경희(설예 78), 김민자(피아노 78)

미주한국민화협회(회장 성기순)가 주최하여 8월 22일~9월 5일 한국문화원에서 거행된 제 6회 '한국의 얼과 멋' 민화전시회에 네 동창이 함께 작품을 출품했다. 이 전시회는 2001년부터 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다.

황은신(생미 70), 변혜경(조소 73)

6월 20일~9월 11일 신시내티 YWCA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 전 'Power of Place, Celebrating International Women Artists' 에 초대작가로 초빙되어 참석하였다.



이춘자 (약학 62) 이춘자 지음/ 미주 프린트론 프린트사 출간

파피꽃들의 왈츠

사진작가인 저자의 천연색 사진을 곁들인 4부작 시집으로 총 45편의 시를 수록한 책. 2003년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원망과 좌절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극복하면서, 아픔을 견디기 위해 배운 사진들과 흐르는 눈물을 담아 펴낸 책이다.

김행숙 (교실 66) 김행숙 지음/ 수필과 비평사

바다로 가는 길

이성과 감성의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으려는 저자의 생각이 문학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테마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 사랑과 감사를 알고 있는 자의 겸허한 행복으로 이 책은 그 감사와 행복을 둑아낸 수필집이다.

서용좌 (독문 67) 서용좌 지음/ 푸른사상

표현형

생물학 용어에서 차용한 제목처럼 저자는 생물이 유전적으로 나타내는 형태적, 생리적 성질의 환경적 발현, 즉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형질이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표현형 발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시대적 조건에 따른 인간 유전자의 개인적 발현을 이야기한 소설이다.

김혜숙 (영문 76) 김혜숙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新음양론: 동아시아 문화논리의 해체와 재건

이 책은 음양론의 역사적 연원이나 전통적 논의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서들과 달리 음양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고 음양의 원리를 재해석해 하나의 철학적 방법으로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책이다.

조연경 (법학 75) 조연경 지음/ 느낌이 있는 책

준비된 신혼이 아름답다(사랑도 공부가 필요해)

사랑에 서툰,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사랑과 행복을 위한 안내서. 이 책은 사소한 습관부터 가치관의 거리감, 생활 방식의 차이, 양가 집안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 등을 심도 깊지만 유쾌하게 다루며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각자 행복한 삶을 행취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임운경 (수학 79) 임운경 지음/ 문학관

경이로운 순간

뒤늦게 수필을 공부하여 78세의 나이로 짐필한 책. 여행과 예술을 접하며 받은 느낌을 깊이있게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과 계절의 이야기로 풀어냈다. 새벽에 열리는 소리, 뜨락에 흐르는 달빛처럼, 자백, 기억의 편린 최초의 조각, 경이로운 순간 등 5장으로 구성되었다.

이현정 (영교 94) 이현정 지음/ 푸른섬커뮤니케이션

스포츠 외교의 현장에서

아시아 45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를 관할하는 국제스포츠 기구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의 조정관인 저자가 전 세계 스포츠 외교의 현장과 OCA-인천 비전 2014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모교소식

제14대 및 15대 총장이·취임식거행



모교 제14대 김선옥 총장과 제15대 최경희 총장의 이·취임식이 7월 29일 김영의홀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준영 회장(성균관대 총장), 서울대 성낙인 총장, 연세대 정갑영 총장, 고려대 김병철 총장 등 주요 대학 총장과 유승희·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민병주·박윤옥(새누리당) 동창 국회의원 및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현정은 이화학당 이사(현대그룹 회장), 장상·신인령·이배용 전임 총장 등 교직원과 조종남 총동창회장 등 동창, 주한 외교사절 등 내외빈 90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최고 여성사학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오종근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양명수 교

목실장의 기도와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의 식사로 문을 열었다.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은 김선옥 총장에 대해 “사려 깊고 정성을 다하고 소통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통해 도전·배려·현신·나눔·정의 등 이화의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며 이화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학교 발전을 위한 노고와 현신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최경희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오늘 이화가 당면한 안팎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적임자로서, 이화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강한 추진력을 겸비하여 이화를 성공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지지를 보

낸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옥 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이화의 역사가 처음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대학이라는 상아탑의 안온한 울타리를 넘어, 겨레와 민족을 위해, 나아가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해,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참여하는 이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4년 동안의 모색과 실천 과정을 통해 점차 구체화되어 이제 ‘글로벌 여성 교육의 히브’라는 비전으로 수립되었다”고 4년 임기를 마무리 짓는 소회를 밝혔다.

최경희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화인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이화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때”라며 “세계 최고를 향한 이화의 도전과 혁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장차 이화 200주년을 바라보는 ‘혁신 이화 (Innovation Ewha)’의 가치를 높이 올리겠다”고 밝혔다.

총장 이·취임식이 끝난 후 낮 12시부터는 ECC 이삼봉홀과 진선미관 및 생활환경관 식당에서 축하 오찬이 이어졌다.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8월 29일 대강당에서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총 1,841명(학사 988명, 석사 770명, 박사 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 날 학위수여식은 주요 내외빈과 졸업생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서혁 교무처장의 사회로 총장 말씀, 학위수여, 축사, 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경희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여러분이 입학할 때 꿈꾸고 기대했던 것,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화 안에서 배우며 성장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성적 판단력과 공감의 감수성을 균형있게 갖춘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해 합리적이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 불안과 혼란이 많은 세상의 난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최총장은 인락한 이화의 품을 떠나거친 황야와 같은 무한경쟁의 시대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네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확인하며 초심을 잊지 말 것과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존 웨슬리의 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을 인용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협력적 태도로 관계를 넓혀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절망에 빠진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년간 노력한 결과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고 많은 이들에게 삶의 귀감이 된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무 조급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끊임없는 노력으로 극복할 것을 부탁했으며 마지막으로 이화 공동체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 달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멕시코 한인 이민자 4세대 중 한국에 건너와 처음으로 졸업장을 받는 게레로 로드리게스 마르가리타 스밀라(23, Guerrero

Rodriguez Margarita Smyrla, 경영학전공 · 10학번)씨를 비롯, 중국, 미얀마, 몽골,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많은 외국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청각장애를 딛고 우등 졸업을 한 정지윤(식품공학전공 11학번)씨를 비롯,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 4명이 학사모를 썼다. 한편 이날 행사는 Youtube Edu 이화여자대학교 브랜드 사이트 (<http://www.youtube.com/user/ewhauniv>)를 통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 및 이화 가족들에게 생중계됐다.

2015학년도 수시 접수 마감, 평균 15.9대 1의 높은 경쟁률 보여

9월 15일에 마감된 모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총 1,871명 모집에 29,690명이 지원하여 전년도(1,591명 모집/22,920명 지원, 평균 경쟁률 14.4대 1) 대비 지원자 수가 6,770명 증가하여 평균 1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별로 원서접수 현황을 요약하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일반전형은 30.7 대 1(600명 모집/18,397명 지원)로 나타났으며 모집단위별로 의예과(125.1:1), 초등교육과(87.6:1), 화학생명분과학부(39.1:1), 스크랜튼학부(36.1:1), 뇌·인지과학전공(31.1:1), 화학신소재공학부(34.6: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교과 전형인 지역우수인재전형은 8.1대

1(380명 모집/3,087명 지원), 학생부종합 전형인 미래인재전형은 7.5 대 1(530명 모집/3,994명 지원)로 나타났다. 이 전형에서도 의예과(15.0:1), 초등교육과(26.9:1), 뇌·인지과학전공(9.4:1), 화학신소재공학부(5.2:1) 등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특기자와 미술우수자전형인 실기/특기 위주전형의 경우, 321명 모집에 3,792명이 지원하여 평균 11.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어학특기자전형의 경우 영어영문학전공(13.1:1),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의 경우 의예과(13.6:1)와 뇌·인지과학전공(7.0:1), 체육과학부(18.5:1) 등이 치열한 경쟁을 나타냈다. 미술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모든 전공이 20대 1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본교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드러난 특징은 모집인원 감소(670명→600명)에도 불구하고 논술고사지원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본교 논술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고교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이 도전할 만하고 우선선발단계 폐지로 인해 실질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되어 논술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궁곤 입학처장은 “최근 수험생들의 남녀공학 쏠림 현상으로 여대 위기감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올해 이화여대 입시 지원 성향을 분석해 보면 불리한 여건에도 남녀공학과 견주어 손색없는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 여학생들이 글로벌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를 추구하거나 여성 친화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전공을 발전, 신설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여대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 분석했다.

글. 이대 기획처 홍보팀 제공(총동창회 홍보부 정리)



신입동창 명단

2014년 8월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으신 여러분의 축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신 입회비는 총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입회비를 납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총동창회에 입회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고은 권영화 김수경 김은혜 김정우 김진아
박민경 박수지 박인해 서예리 신주희 신현경 심현희
안아람 윤서희 윤성신 이수현 이인재 이정하 이한솔
정선화 정아람 정지혜 최서진 Shiu Hoi Ying 노지환
서은지 최다정 최유라

중어중문학전공

강지혜 곽은정 구민선 권민재 김민서 김연정 김정연
김정화 김혜림 김효정 박경윤 백소연 선한솔 송시내
이환희 윤정희 이서경 이유진 이정하 이지연 임고은
정하윤 한수빈 홍예림 김성민 김성수 신새미 이한나
전은성

영어영문학전공

강명신 강지아 김그랑 김다은 김민지 김성수
김슬기 김원지 김이현 김지선 김지현 김현주
노희원 류미정 박다빈 박영아 박치신 박현정 배환희
백설 안혜상 양혜원 유도희 윤지혜 이경선 이수영
이승은 이예나 이예진 이유진 이현주 장미루 장재희
전귀란 정미애 정예은 조영주 지신정 진은수 최지수
황세정 Sato Yukie 김서용 김성민 김수지 김예영
김지인 박근우 유지연 이세인 이하나 정연봄 최이슬
불어불문학전공

길수정 김수지 김아름 김진아 민지원 박근우 박신영
성혜미 안은수 양슬아 오주현 이샘이나 이윤하
이혜미 최경은 구경영 김민조

독어독문학전공

강혜민 구보람 김예영 김지은 김혜리 김효진 손은빈
Baaatarzorig Jargaltsetseg 이영연

사학전공

강윤빈 김누리 김솔비 김재영 류혜림 박가영 박경완
박민혜 박소정 박승혜 박지희 서정 윤송미 윤지은
이은정 전하영 최승연 하주연 이인재 임은정

철학전공

김다은 김동영 김민정 김수지 김예지 김한울 유지연
이예림 최지원 김민경 이수연 전민해 최리이

기독교학전공

김수진 김윤아 김희래 이유정 이하나 최미건 최평강
한지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강채원 강효나 고예슬 고현아 구경영 김누리 김민초
김영경 김은진 김지원 류하정 박가을 박새미 박설미
박재영 방은정 손연지 신수경 오지수 유혜영 윤소현
이보람 이상희 이샛별 이영란 장선희 장혜원 한민정
한혜주 홍수연 흥지연 강다인 권다예 김다솜 김미래
김진아 배환희 서예리 성혜미 오해인 임지민 조유나
한지예

행정학전공

권보예 김미정 김현지 김희언 박경화 박민정 송지원
양수연 이미현 이솔아 정나라 진소현 강슬기 류연오
박세현 박소정 허예슬

경제학전공

강슬기 강예지 강희진 고은결 곽주영 권다미 권지은
김가영 김나연 김나연 김서연 김수현 김신정 김아영
김유림 김유현 김하나 김현정 노혜림 류연오 박안나
박연수 서윤현 성은희 신상희 심수민 오수진 윤민재
이경희 이규원 이승은 이에스더 이예진 이유정
이지예 이지윤 이지은 이지혜 이현주 이해원 임예원
임희진 장자현 장재영 장혜정 장혜진 전혜미 전희재
정다혜 정소영 정유경 조명진 조안나 조진효 전혜미
차지인 한기윤 한지예 혀유정 혀윤정 홍예달 황영선
강유송 강인영 고유진 고은 곽다혜 구민선 권보예
권지혜 금예지 김다예 김민선 김버리 김선영 김영경
김예진 김은아 김은진 김재영 김정연 김정우 김지영
김한울 김혜미 김효정 남주리 민정기 민주영 박가을
박경민 박수지 박슬기 박아름 박희경 박효원 박희재
방혜성 서이슬 선한솔 신민선 신수경 양수연 오지수
우지은 유주현 유하연 이가필 이민지 이서연 이아연
이우진 이윤지 이주희 이한솔 이현주 이해미 임다빈
임서영 전귀란 전성윤 전필례 정도당 정도미 정은민
정지혜 조소담 조현선 조호정 최영선 최원민 최윤정
최혜민 하주연 한민정 한선아 혀지수 혀한솔 홍수연
황상은 황정원

문화정보학전공

김민경 민다홍 이기영 정보영 최연정 강희원 박경완
박소연 박지원 송지수 안은수 이정하

사회학전공

강혜미 권민아 김가영 김나나 김남연 김재연 김재원
손희란 신소희 이수민 이유진 전필례 정도담 조소담

허한솔 CHEN YUN 김나연 김희언 박새미
박재영 안귀령 유지연 이해나 전은지 홍숙정
Ma Long Zhang Ying

심리학전공

강부선 구현진 김규미 김버리 김서경 김지원 김지인
박다희 박미선 박민정 오다예 유연지 이윤지 이지수
이채영 지소연 최다혜 고귀영 권용아 김경리 김경원
김글로빛나 김남연 김다은 김다은 김도영 김민경
김민정 김보람 김아랑 김영은 김지원 김진아 김찬미
김혜성 나신영 도준혜 박민경 박정원 박혜영 서다혜
서윤현 송지원 송지윤 신가람 안신혜 양정원 염세민
이기영 이유정 이지연 이지은 이현주 장은선 조영미
조윤조 조지영 한수빈 한재숙 황지현 황혜영

소비자학전공

김세정 김지선 류은지 민다혜 백승연 서다혜 손정선
신동연 이동연 이수희 이예지 이주현 조연주 한은지
권민재 김희래 노정은 박은정 안소정 지소연

언론정보학전공

권정시 김다솜 김선화 김은지 박선유 송지민 안귀령
안신혜 이해나 임은정 장수빈 전민해 전은지 정소은
최유라 최한솔 Ma Long SHEN YUHUAN 승여선
안아람 장혜원 흥지연

광고·홍보학전공

권찬미 김가영 김민경 김은미 문지수 민정기 박혜영
승여선 이유정 정현정 최다예 황다희 황혜영
JIANGJIAYUZHURANPAN 김선화 김수경 김진주
민지원 박혜진 오다예 이정하 장미루 조은혜

방송·영상학전공

김유정 김효은 박윤진 박희영 장다혜 조은혜 홍숙정
CUI LIN NGUYEN THI HA MAI 김민지 엄일경
이다영 장수빈 황다희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장봉수 김달래 김미진 김은아 김지영 김형지 박세진
방혜성 옥수연 유주현 유효정 이가필 이민지 정예경
정은민 조영미 진영현 최한나 한정원 허지수 이지윤
이현지

통계학전공

곽다혜 금예지 기예림 김다예 김민선 김예진 김정주
남주리 문유진 민주영 박슬기 박아름 박초롱 박희재
서슬기 신민선 염수연 오윤석 유하연 윤월아 윤은희
이서연 이현지 이해주 임은희 조현선 최민경 최승희
최윤정 최혜민 강봉수 박세진 이민지 장자현 전혜미
진희진 황찬경

물리학전공

김형주 박수인 손수정 이나래 이보배

화학·나노과학전공

곽미진 권소영 김명희 박유미 박주연 백연주 복정민
서지윤 이성희 이유리 전다영 차지미 황윤경

정혜수

생명과학전공

강민혜 권영인 김아빈 김유정 박세라 백승주 서지혜
손다슬 손승연 양정원 유아름 유혜종 윤영지 이정수
이지연 이지희 이해영 이해환 정혜수 진희진 최경아
최연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김민아 나경빈 류혜경 박가혜 박지선 신미경 신유미
원혜진 윤소현 윤지연 이고운 이윤지 이재현 임승연
좌혜연 최세림 한경아

전자공학전공

권임정 김명은 박윤정 안수정 이신정 임세영 하린
황보현

건축학전공

김부경 김예진 박성월 신지혜 윤지윤

건축공학전공

곽민주 권지혜 김도리 김민경 김민희 이경하 이소정
이여경 임수진 한경아

환경공학전공

김의화 김정은 양은총 양혜인 홍승희

식품공학전공

김민영 김지원 반석주 신민경 윤지영 이지윤 이해민
임현지 장재경 정지윤 조솔 조윤정 최희정 한송희
한윤지 한지혜

음악대학

건반악기전공

김찬미 박현주 유은혜 이민하 이소민 이영신 허신아
관현악전공

김윤우 박소은 원지현 이지윤 정유진 정지은 조아영
주정윤 홍유빈

성악전공

김소리 김희연 박금현 박하은 여정윤 윤지현

작곡전공

김소니 김언지 문혜성 손호영 이나영 이해원 정찬민
한국음악전공

김글로빛나 박초혜 이윤지 임사량 정새봄 주애솔

홍승현

한국음악과

강다영

무용과

김기령 김미솔 손예운 이나래 이다이 이다혜 이예은
이정윤 임수정 임하늘 조은시 SHIDO HITOMI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김소경 김효진 문지현 박소연 신혜영 이고은 이윤지
이은별 이지윤 이찬주 조민경 최재현 한정민

한국화전공

최리이

서양화전공

김경원 김민정 김신영 김지원 송다슬 오자현 유수빈 윤봉민 이윤주 이한나 장현우 정예은 최유은 최자윤 한정민

조소전공

김민수 박상희 박서영 신은지 여연희 오혜민 이아리 최리이 최세진

섬유예술전공

강세진 노누리 문희 박지령 원인선 유이름 유해나 이수연 정소윤 한지나

도자예술전공

김경미 김정민 문희정 이윤서 장미현 최서원

공간디자인전공

구나리 민지선 유사하 장수정 장준아 정선 정유정 시각디자인전공

강민정 박고은 양해양 유신승 이은지 이해진 임기옥 정혜정 LEONG FUI WAN LEUNG KIT TING KAREN

산업디자인전공

김지선 남효림 이민영 이선혜 최수현 최연희

패션디자인전공

권혜진 김가혜 김민재 이유경 임지연

SUKHEE ERDENETUYA

영상디자인전공

고유정 권새이 정여진 황영랑

의류학과

김혜원 박선양 박수현 박정민 박지은 송다운 선지은 양의영 오로라 유승민 윤소연 이영은 이주현 이한나 임지연 조연화 조희진 지승현 최이슬 한지현 흥유리 LIU XIANGHUA 강민정 신혜영

사법대학

교육학과

고귀영 김서용 나신영 남아영 이보람 이은지 정민겸 현정아 황지현

유아교육과

김민정 변진영 이해선 조아라 조지영 권리혜 박선영 초등교육과

김경리 박지은 삼유진 여혜진 유지승 이주현

교육공학과

강보경 강지연 김예진 문지현 선보영 성한울 윤지은 임수립 정민주 정슬아 정유인 최다정 홍지원 특수교육과(유아특수교육전공)

권다혜

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전공)

김진아 노소담

특수교육과(중등특수교육전공)

권서라 김지원 노신영 류은수 문화연 박정연 백기인

서은영 오승은 유태희 윤지영 이정현

특수교육과

박소예 이은지

영어교육과

김희진 나유정 박영은 박혜림 임서영 임지민 최은지 추상원 한숙영 변진영 현정아

사회생활학과(역사교육전공)

강희원 고민지 곽지영 김보람 김선나 노푸름 장은선 사회생활학과(지리교육전공)

김도희 김지선 김희은 박하나 서은지 서지원 서한솔 송윤주 이원상 이해선 정지은 정혜영

사회생활학과(일반사회교육전공)

강은수 서은주 이세인 이수연 이루진 주예나 서은영 국어교육과

박수현 박지원 송지수 이민화 한상은

과학교육과(물리교육전공)

김솔 김은정 박선영 정혜원

과학교육과(화학교육전공)

권지현 김효은 심지황 윤지혜 이정은

과학교육과(생물교육전공)

변효정 이난영

과학교육과(지구과학교육전공)

장유나 정새미 최효선 김민정

수학교육과

김은미 김이슬 나선경 송지수 전성윤 주희영 최수아 황찬경 김솔 김은정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강유송 강인영 고유진 고현경 권용아 김경주 김도영

김미래 김민경 김선영 김성경 김성민 김소리 김아랑

김은지 김지영 김지현 김지현 김혜성 남초연 마혜원

문경미 박무늬 박예림 박은정 박정원 박효원 백소영

변유선 성다경 송명선 신가람 신새미 안민영 염세민

오윤진 우지은 유지연 윤새힘 이다혜 이상미 이아연

이은솔 이은애 이은정 이해정 이주희 이지수 이지원

이지윤 이창희 이하진 이현주 임다빈 임현경 전은미

정현지 조혜민 진수민 최영선 최예은 최원민 태윤진

하고은 한선아 한효진 허예슬 호윤정 황상은 황정원

황자현 BATBAYAR TSOLMON GUERRERO

RODRIGUEZ MARGARITA SMYRLA KATHY

KYAW WIN LI YAN Zhang Ying 강은영 강재연

강지아 강지연 강지혜 구보람 권리미 권리영

김민정 김아현 김언정 김은미 김은혜 김이현 김정화

김지현 김현주 김현지 김혜리 김혜림 김효진 노신영

노희원 류미정 류은지 문유진 박다훤 박민정 박수현

박신영 박정연 박초롱 박현정 서슬기 서은주 신주희

양슬아 어환희 오로라 유후희 윤월아 윤지혜

이민화 이소영 이수영 이영란 이영은 이예나 이예림

이예지 이유미 이유정 이유진 이유진 이유정 이정은

이정현 이주현 이현주 이해원 임수립 장재희
전희재 정민주 정보영 정선화 정슬아 정아람 정예은
정은지 조연주 조영주 조지영 주예나 지승현 지신정
진은수 최민경 최별이 최지수 최지원 최혜경 한은지
한지은 한지현 험민정 허유정 흥유리 황영선

국제사무학과

강은영 국연수 권영은 김강희 김해미 김효인 박희경
손해연 오해인 윤소진 이소영 이윤아 최혜경
JIN GE JIN LINA Kang Ying Wu You 강보경
강서윤 강혜미 김서경 김소리 김지원
김현정 성다경 윤지 이난영 이지연
황세정 Baatarzorig Jargaltssetseg
국제사무학전공
백소연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전공
김연진 김은성 박미소 송류리 송지윤 신민지 원지영
장소영 주다영 최수민 한재숙 허지연

체육과학과

강서윤 김명희 김수영 김인경 박세현 윤혜민 이하진
조윤조 함민정 홍주연

식품영양학과

김광미 김보미 김성민 김소영 김승혜 김아현 김하정
노지환 문소희 박선영 박정아 박지수 백다영 안소정
염이슬 이민지 이시진 이지수 조은아 주소영 최별이
황유진 송류리 조명진
보건관리학과
김다영 김지영 남해나라 남혜경 이주은 임아영 장현
진 허민

스크랜트대학

자기설계(스크랜트-통합적문화연구)전공
김슬기예 김지선 박치신
자기설계(스크랜트-디지털인문학)전공
한가윤
자기설계(스크랜트-사회과학이니 셔티브)전공
곽주영 김서연 손희란 이예진 임아영 한민정 홍예닮
자기설계(스크랜트-사회와정의)전공
문경미 송명선 이승은
국제학전공
강다인 강재연 권다예 김민형 김진주 도준혜 박경민
박혜진 서이슬 손보연 신예지 염일경 이다영 이영연
이유미 이정은 전소현 정연봄 정은지 정혜수 조유나
조호정 최지수 GLORIA JEEHAE CHOI 김광미
김예지 김희진 이해선

예술대학

성악전공
정슬기

작곡전공

손민영 윤미혜
동양화전공
김복은 이인애 이주형 전은성

서양화전공
이가희 전현선
조소전공

강부영 권미정 김한결 박가영
섬유예술전공

천주향
도자예술전공
이기정 이예령 정상숙

시각디자인전공
김현정
패션디자인전공

박혜원 엽근림
영성디자인전공
윤현지 이희영 이주형
의류학과
나연이 노정은 송채원 정예진 최미림
무용과
김지원 정혜주

법과대학

법학과
강지현 김민정 김재령 김정은 김지연 김한민 김현진
김희진 문보경 박다미 배소영 백지원 신은영 신지원
신지윤 양현애 원소연 정수진 홍자연 황혜영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이재영

연계전공

동아시아학전공
곽은정 이경선 이규원 임고은
미국학전공
윤송미
유럽학전공
강혜민
미술사학전공
강세진 고예슬 김누리 김동영 김재원 김지선 김지원
김혜원 김효인 문희정 박민혜 박예림 박지희 송다슬
신지은 여연희 오자현 오혜민 이윤지 이정윤 이지윤
임지연 정예은 최승연 최유은 최재현 한정민 한정민
여성학전공
김미정 박다빈 박인해
멀티미디어학전공
윤지은 이나래 임지연 최다예

전문영어전공
문지수 박선유 손보연 이경희 이예진 정혜수 최희정
NGO전공
류하정
북한학전공
고현아 김가영 이유진
과학기술경영전공
김지현 옥수연 이나래 임은희
재무경제전공
김수현 오수진 우지은 정현지 황상은
공통사회전공
강희원 곽지영 김선나 박하나 서한솔 송윤주 이원상
정지은 정혜영
공통과학전공
권지현 김솔 김은정 김효은 박선영 변효정 심지황
윤지혜 이난영 이정은 장유나 정새미 정혜원 최효선
아동학전공
김찬미 박하은 송채원 이지수 이채영 조은아 최다혜
바이오인포매틱스전공
박세라
자연과학과 철학전공
이유리
일본언어문화전공
김솔비 김아름 양혜원 이서경
사회복지학전공
김은지 김희진 이샛별 이에스더 최다혜
융합디자인전공
김지선 최수현

석사학위 수여자 명단

대학원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강은혜 김서영 송현경 안혜란 최선혜
CHUENGPREM PREE ARJAREE
중어중문학과
박윤지 양초롱
영어영문학과
강민정 고근영 김보람 김의영 양소정 정승연 홍승란
불어불문학과
이희서
기독교학과
구본경 장예슬
철학과
권지혜 이지영
사학과
조은정
미술사학과
권민지 김소정 김은경 김지인 박소연 오윤빈 유시내
이정민 이주민 장정인 정다혜 한주혜

소비자학과
정주연
여성학과
김세옥 이미연 이해경 임수영
교육학과
나혜원 박산하 석민정 양국희 이아진 이유민 이지은
인보란 정수연 허은주
유아교육학과
박혜경 최혜림
조동교육학과
김보근 한현지
교육공학과
남미라 이지영 정보경 함유경
KANG JEEAE STEPHANIE
사회과교육학과
김연지 노경원 이정현 지연정
국제사무학과
박상희 박지희 신수연 임다혜 임수원 최유리

정치학석사

정치외교학과
김지연 이진영 전송이
LIU XINYU Sutthimarn Nisaporn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이정아 Pouv Salem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RAN QINGYING WU YINGYAN

문헌정보학석사

문헌정보학과
김아연 신인경 양인혜 온혜성 전정미

사회학석사

사회학과
김인애 유흥선 WANG WEI YI

심리학석사

심리학과
김미정 김소현 김윤아 김은지 동미라 박지운 박찬미
방지원 백상은 성하은 손슬기 신서란 우애리 유주희
이기나 정민교 조가람 조은영 지은선 한성은

언론학석사

언론홍보영상학과
강승미 김소형 김환희 나윤정 박세린 성현정 오유진
유수영 이민정 최주영 XIE WEN zhang ying

아동학석사	김주희 최유리 에코크리에이티브 이재우 장하늘
아동학과	
김보미 김여름 김임순 송주연 임지희 정혜진 최나래 최미나 최진영 한의선	
북한학석사	약학석사
북한학과	약학과
김초롱	김경미 김현정 박소은 심상희 함박눈
교육학석사	과학교육학석사
국어교육학과	과학교육학과
공주희 김도희 박서영 신정원 진영희 영재교육 권민정 김광송 지영은	김수아 노영 신영 채승애
언어병리학석사	보건학석사
언어병리학과	보건관리학과
김하나 박은지 백선혜 신유영 안지영 양윤희 윤미라 정민지 언어병리학 홍주애	강예원 김민지 김유진 안성미 양선영 이미진 이봄이 허민지
법학석사	간호학석사
법학과	간호과학과
김누리 김민아 김민정 민여울 배윤주 유지아 이경미	김영은 김혜진 변진이 서유진 심소연 양정란 이민경 이보영 이은혜 이정란 이혜순 차은지
경영학석사	의학석사
경영학과	의학과
김량희 김별아 김정은 김지영 박현민 신연수 조윤희 ZHANG QIAOYING	강인숙 김경연 김소연 김현진 이현주 진은효 최예지
음악치료학석사	공학석사
음악치료학과	컴퓨터공학과
김새롬 김창희 최진희	윤영미 DUKH ZOLJARGAL 건축공학과
이학석사	김나은 환경공학과
수학과	방세미 양보람 전혜영 최지연 대기과학공학과
이민정 정은주 지서인 통계학과	정승원 식품공학과
강경민 김혜승 윤수인 이동은 이해리 한가희 화학 · 나노과학과	배수진 백아형 소민영 이수진
김세진 나지선 박지영 장유림 정하영 조아라 천성희 최미선 CUI MEILING 생명과학과	디지털미디어학석사
김주송 김준아 류한나 안유리 과학교육학과	디지털미디어학부 류민수 민경란 박선아 JIN YAN
유혜인 식품영양학과	음악학석사
여가은 이승재 이지민 이희진 최지혜 최한샘 한찬정 의과학과	음악학부 김민 이현정
	음악석사
	음악학부
	강우진 계선인 고현정 권예원 김서림 김윤혜 박민지 박윤주 박지현 서혜진 송현승 신지민 심새봄 심신지

오경화 오유진 유은미 윤효선 이소망 임정후 조슬아
조현진 함정민 홍재선 황별 황은지 황초후

조형예술석사

조형예술학부

강주현 강효정 고유진 기유경 김라연 김병진 김우정
김지인 김찬미 김태은 유안나 윤소영 이지영 이효정
전채강 조보경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부

강소은 권민정 민지혜 박세나 유수연 이나라 이설희
이현정 임리나 정현진 좌민경 천지윤 최단비

의류학석사

의류학과

여수진 유효진 윤빛나 이교영 이자영

무용학석사

무용학과

심지원 유화정 이자현

무용석사

무용학과

김미경 오윤형 최유진 최윤선

체육학석사

체육과학과

김유라 윤희준

지역학석사

지역연구

최경진

생명윤리학석사

생명윤리정책

장희숙

국제대학원

국제학석사

국제통상

여명

개발협력

강은지 김민선 이종희 최미지 Abbeyquaye,
Juliana Abdullah, Kosar Sattar Abineza,
Sylvine
Adu-Tutu, Amaberli Ajuba Ataye, Saida
Banjade,
Durga Benelhadj, Nezha, Debebe, Debrawork
Luleseged DONA WICKRAMASINGHE,

Nolinika Urani, Ekpo, Uduak Imoh Fatuot, Toyin Caroline, Gebril, Salma Mohamed-Tarek Mohamed-Refaat

Ibrahim Guerra, Maria Victoria Htun, Htay Htay Kwikiriza, Pamela Shiellah Kyaw, Htin Muyar

Magera, Daisy Munis, Jamila Mbarouk Musiimire,

Dorah Miriam Nairobi, Amelia Marama Nankunda, Oliver Ramadhani, Dilla Trianti Ramoau, Ednah Dii Sarmashq, Sarwanaaz Seng,
Sineth Tsogtgerel, Amgalan Yin, Iwiliss 국제관계

SEMA, ANGELY

한국학석사

한국문화

권상화 김민정 MUTO, KAORI XU, YIXIN

한국어교육

강수빈 강현진 김현서 문미경 박늘봄 이가은 이세영
이은주 전우주 정여진 최경화 최수진

KANGPANICH, PIYAPA Nagase, Keiko NISHIYAMA, China Patee,
Isariya Soonchan, Sumalee

동번역대학원

통역학석사

한영통역

장인해

한불통역

김우리 이희경

한일통역

김소영 장한나 한다 마미카

번역학석사

한불번역

박선미 박윤신 주형경

한중번역

유영애

한일번역

김현정 양효정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

강명주 고영 김수현 김혜경 김희정 문정은 윤희수
이경선 이경은 이재은 전진 황지영 YUE YING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

경영학

권순진 김경민 김미현 김보미 김정은 김현아 김혜진
김희정 노정현 박정현 서은정 양진녕 오세윤 용선주
윤재경 이승아 이해란 이현주 임민경 정여진 정지은
차해린 한지희 황희선

재무

강지혜 박재연 손경주

마케팅

부정화 서채원 오미숙 허은선

경영정보시스템

김지혜 김혜음

인사조직전략

박미영 이항희

금융MBA

권유리 윤송희

회계전문MBA

강수진 이정연

의료경영MBA

강민영 민옥준 성지혜 전여울 정혜정 최경선 하승혜
홍은기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국어교육

김민아 민지혜 박정아 이은솔 전민영 정유진 정재은
조인선 조하란 최유진

수학교육

김기영 김성은 김슬기 박경희 양윤진 오지민 임승리
장민지 조지희

역사교육

김윤아 정경화 한규희 한희수

일반사회교육

김윤희 김은혜 조미성 조은아 최소망

물리교육

김나연 김지연 조은하 최아름

화학교육

김다은 김혜경 박선영 박소정 방애리 정은선 홍민아
황찬숙

생물교육

김민정 김수현 김윤미 김은실 노양숙 오혜정 이재경
이정수 이재현 조순영

지구과학교육

윤소연

음악교육

강수현 김도연 김수연 김신애 김혜리 박은진 송미영
유진선 은보라 이신애 이은한 장윤정 정지영 추성혜
현희승

미술교육

김소정 김태은 김히은 김혜선 박민경 박신아 서다솜
신나리 심재익 이예진 이지연 최서윤 한다운 홍수정
황윤정

체육교육

권현화 김보혜 김영지 김이정 박유나 유지혜 윤경진
이경미 이소현 임혜지 최화영

가정과교육

김명경 김엘리

도덕·윤리교육

정은혜

영어교육

김은혜 박주희 이윤희

중국어교육

민순아 선미래 소숙현 윤다보미 이영지 조은아

컴퓨터교육

김진

유아교육

강세희 김은수 김현주 김혜영 민진선 배현지 송주연
유지선 이은주 정지근 최세희 함혜정

초등교육

김혜나 안지선 안혜연 이보리

특수교육

박경희 박인선 배수진 이성아 전주희 한경인

교육과정

한신영

상담심리

김련구 김은혜 김이령 김지현 신나경 윤효정 정승희
조주영 최경수

교육공학

고아영 문희 이정민 이해진

한국어교육

권미혜 김경미 김새미 김진영 김해진 노태희 박정하
오세라 이선민 이지현 이희옥 임선영 정정원 한수정
한인숙 홍송희

음악치료교육

공지윤 권미진 박민정 배하경 서란 신아름 원사라
이은경 임주영 정윤경 조은지 주빛나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석사

의상디자인

김아라 박은영 안민희 오아림 이예진 이윤진 장서영
정보라

섬유디자인

김나영 김지혜 김현정 김혜진 문소정 이청심

도자디자인

김소연 류현정

광고 · 브랜드디자인

권현정 박시연 서인덕 신소영 유은지 전윤희

실내디자인

이미경

User Experience디자인

강효진 김현수 조주희

디자인매니지먼트

김기영 김민채 김보라 김수연 노소담 마옥선 박지연
박현선 송윤수 송지연 안희영 윤선영 윤혜림 정미희
조여영 최설아 최지선 최지유 허소영 LEE CLAIRE
JIHEE

정보과학대학원

공학석사

컴퓨터정보학

이현호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신학

김진영 박경하 박인선 안계영 오성자 조서윤 전미영
최주자 황미아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석사

공공정책학

강은영 박희정 이연화 장윤서

경제학석사

공공정책학

정명선 황정아

언론학석사

언론홍보학

박지연 원자현 이민지 이은정

기록관리학석사

기록관리학

김효선 서새미 이지은

공연예술대학원

음악학석사

음악공학

김수정 김은우 김지업 박연신 송신애 이선이 전명진
정혜지

피아노교수학

공선영 권현주 김경희 김영은 김예나 김은진 김진경
김진희 김현정 노에스더 박민재 박진아 송민정
이지영 이해림 정현희 최광희

음악예술경영

김초원 이예영 정보미

무용예술석사

무용공연지도

김미정 정수은 최은화

조형예술석사

무대미술

김유리 신정주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약학석사

임상약학

김영순 김지영 박유경 박지애 박지영 박지혜 박지혜
박진영 이유령 이현정 HIRATA SUMIKO

영양학석사

임상영양학

김미라 김보미 김효선 민혜인 박서경 신지원 염은경
이상아 이유진 정진아 황희숙

간호학석사

임상간호학

김란영 김수영 김혜린 오향옥 윤지영 정지혜 조혜정
최소영

임상치의학대학원

치의학석사

임상교정치의학

구은정 김은정 이아름 이윤주

구강보건학석사

치위생학

김지선 박혜란 배지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TESOL석사

TESOL

텔란조캐서린 신경윤 윤현정 이은영 임지원 조민정
편지원 EunHea Choi Stephanie Ellis

국제중국어교육학석사

TeCSOL

이영립 이은율 주지숙

한국어교육학석사

TKSOL

김규인 조연수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대학원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하지영

기독교학과

박강희

미술사학과

한혜선

교육학과

박진아 이영주

유아교육학과

박선헤 오완숙

초등교육학과

감성원 이상희 이지은 천윤영

영어교육학과

이민진

수학교육학과

이민희

디지털미디어학부

최선영

철학박사

철학과

이지현

정치학박사

정치외교학과

장필남

문헌정보학박사

문화정보학과

송경진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학과

김경란 정지영

심리학박사

심리학과

박은선

아동학박사

아동학과

조수정

북한학박사

북한학과

모순영

교육공학박사

교육공학과

Teresa Liew Bao Yng

특수교육학박사

특수교육학과

송은주

법학박사

법학과

배유진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권수연

이학박사

물리학과

김해리 최은영

화학 · 나노학과

Kalsoom AKHTAR Shinde Usha

PRAMOD

생명과학과

박소정 박찬이 정세진 정혜윤

식품영양학과

오지은

의과학과

신현수 안소현

약학박사

약학과

심주현 염소영 유진하 정연경 정혜진
하지영

NAYAK AKSHATA DEVIDAS

과학교육학박사

과학교육학과

김경원 김세미 서재현 유정숙 이은향
정윤숙

보건학박사

의과학과

김경숙

간호학박사

간호과학과

왕희정 윤오복 정계선 BHANDARI
PRATIBHA
Jin Lihua

의학박사

의학과

금보경 길양숙 신윤정 이진 장은미

의과학과

김정아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선우경

디지털미디어학부

고은지

음악학박사

음악학부

김원하 홍성지

조형예술박사

조형예술학부

정용순 차수진

디자인학박사

디자인학부

국혜승 김지윤 신영선 윤지영 제나나

허진영

무용박사

무용학과

조정희

체육학박사

체육과학과

김옥자 김유련 김의진

지역학박사

지역연구

이순임

생명윤리학박사

생명윤리정책

김아진

국제대학원

한국학박사

한국어교육

박은선 이은하

통번역대학원

번역학박사

번역학

홍정민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가나다순 게재



조애진(신방 66)동창 대통령상 수상

육아방송 이사장인 조애진 동창이 7월 11일 제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육아 환경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최영애(기독 74)동창 서울시여성상 대상 수상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최영애 동창이 7월 5일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텔북여성 인권향상 등 여성평화운동 확장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조성남(사회 77)동창 평화의료재단 총재 취임

이대 교수인 조성남 동창이 6월 26일 빈곤국가 의료시설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평화의료재단 총재로 취임하였다.



김경숙(체육 78)동창 대한체육회 심판위원장 선출

이대 교수인 김경숙 동창이 6월 27일 4년 임기의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권숙교(수학 80)동창 한국여성정보인협회 회장 선출

우리 금융그룹 임원, 우리FIS 사장 등을 역임한 한화투자증권 상근고문인 권숙교 동창이 8월 21일 제12대 사단법인 한국여성정보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문미란(법학 80)동창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선임

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이며 법과대학 회장인 문미란 동창이 7월 1일 임기 3년의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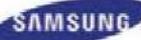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입회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
- 입회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관리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력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플라자 7F • 결혼증개입 신고번호 : 강남080045



삼성생명공익재단

10년 더 젊게 사는 노하우

삼성노블카운티

주거와 의료, 스포츠, 문화, 요양을 한 곳에서
누리실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시설과 시스템

- 보다 젊고, 당당한 시니어들을 위한 행복조건



삼성노블카운티만의 10년 더 젊어지는 노하우

- ✓ 하루 3번 균형잡힌 식단으로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 ✓ 식사, 청소 등 가사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취미활동 시작하기
- ✓ 휴트니스, 수영장에서 매일 꾸준히 운동하기
- ✓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의료진들과 건강에 대한 상담하기
- ✓ 배드민턴, 합창단, 사진, 아쿠아로빅 등 동호회 활동 시작하기
- ✓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으로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젊게 생활하기



맛, 영양, 건강, 즐거움이 있는 식사서비스

- 600여가지 다양한 메뉴의 식사 서비스
- 개별맞춤식단, 테이블 서비스 제공
- 저염, 저당, 저지방의 건강식 제공
- 상상하고 위생적인 식자재 사용
- 영양사의 영양상담 및 전문적인 식사관리



편리한 생활지원서비스

- 입주 후 전담사회복지사의 안녕서비스 및 생활상담
- 주 2회 청소 및 침구류 세탁
- 서울 양재역, 삼성의료원, 수원 영통역 세틀버스 수시운행
- 은행·증권사 등 금융상담, 시설 A/S 전담직원 운영



건강하고 활력있는 스포츠활동

- 4개월 전천후 운동시설 (휘트니스, 수영장, 실내체육관, 워킹트랙, 골프연습장, 스위시,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실)
- 단지내 산책로 (아생화정원, 약 30분)
- 청명산 등산로 (코스별 1시간~2시간)
- 입주회원 스포츠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스트레칭 등) 전용강좌 (무료)

② 중풍·치매 등 만성질환 케어를 위한 프리미엄급 요양시설

- 24시간 전문 간호, 간병서비스 (투약 및 건강관리, 위생관리 등)
- 물리치료센터 운영 (운동 및 열전기치료, 작업치료실)
- 문화여가를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 : 음악, 미술, 원예 등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여가 활동

- 시니어 전문 문화센터 운영
- 다양한 이벤트 (음악회, 명사특강, 나들이, 가든파티, 바베큐파티 등)
- 근교나들이, 테마여행
- 도서관 운영 (매월 신간도서 비치)
- 인터넷실, A/V룸, 멀티미디어 노래방, 서예실 등 운영



의료, 재활, 응급대응 서비스

- 내과, 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의료센터 운영
- 건강검진센터 : 연2회 무료 건강검진
-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운동치료센터 운영
- 세계 시니어타운 최초 뇌건강센터 운영
- 건강상태별 차별화된 관리 (일반세대+프리미엄세대+너싱홈)
- 24시간 응급대기 및 후송서비스
-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병원 진료연계 구축

일일체험 초청안내 (사전예약)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내용 | 시설투어, 회원전용 식사 체험

위치 | 용인시 기흥구 (영통역 5분 거리)

www.samsungNC.com

문의 | 031-208-8001



“남위22도 서경43도 코파카바나 해안 15km
고객님의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 중입니다.”

바다 위의 실크로드 현대상선이 안내합니다

세계 150개국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현대상선에게
바다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영토입니다.



모교 제15대 최경희 총장 취임 ‘이화’의 재도약, 세계 명문 꿈꾼다

8월 1일부로 ‘이화’는 제15대 최경희 총장을 맞았다. 총동창회는 8월 20일 신임총장 취임 축하연을 개최하고 총장이 가진 ‘이화’에 대한 열정과 꿈을 경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동창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모교를 응원하고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다.

